

第 54 號

第189回 臨時會

第190回 第1次 定例會

第191回 臨時會

第192回 第2次 定例會

議政報告書

(2010. 7. 5 ~ 2010. 12. 21)



大邱廣域市議會事務處

第 54 號

第189回 臨時會

第190回 第1次 定例會

第191回 臨時會

第192回 第2次 定例會

議政報告書

(2010. 7. 5 ~ 2010. 12. 21)



大邱廣域市議會事務處

目 次

第189回 臨時會 3

第190回 第1次 定例會 31

第191回 臨時會 97

第192回 第2次 定例會 123

第189回 臨時會

I. 集會 吳 議事日程	14
1. 集 會 / 14	
2. 會期 吳 開議日數 / 14	
3. 議事日程 / 15	
II. 議案接受 吳 處理現況	19
1. 接受現況 / 19	
2. 處理現況 / 20	
3. 主要議案 處理內容 / 23	
4. 繫留議案 / 28	
III. 本會議 傍聽 現況	29

開 院 辭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가 개원하는 매우 뜻깊은 날
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서른 세 분의 시의원 모두는 250만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당선되신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는 지난 선거에서 믿음과 신뢰로 우리 의원들을
선출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출마 당시 약속한 의정활동에
대한 비전과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고 시의원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매우 엄숙한 자리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숙연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지역 현안 과제들을 지혜롭게 풀어 대구시
민의 삶의 질과 사회 복지 수준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살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선진도시 대구의 희망찬 내일을 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도약하는
대구 미래의 다지는 중요한 시기에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
무를 맡고 보니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게 소임을 다해 우리 6대 의회에 거는
시민들의 큰 기대와 동료 의원님들의 성원에 부응하고, 우리
의회가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지역민의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제 신명을 바칠 것을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짧은 기간에 빠르게 제도적인 측면을 갖췄지만 그 제도가 아직 내실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쌓아 올린 지방자치의 기반 위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지역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생활밀착형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 6대 의회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방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여 지방 분권을 이루고 지방 정부와는 효율적 감시와 견제, 협치를 이루며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주민 공동체 단위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지역 산업 육성의 성과 창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6대 의회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줄 2011세계 육상선수권대회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과학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대형 국책사업과 영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대구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중앙 정치권과 시 집행부와 협치를 이루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각오로 출범하는 민선 5기 김범일 시장님의 ‘더 큰 대구 만들기’를 위한 각종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주요 역점 시책 사업과 민생 현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이루고, 대구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지방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적절한 협조와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우리 시의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재정 운영 규모가 약 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복잡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려면 집행부의 정책을 속속들이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와 적절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인력과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등 의회가 전문성을 갖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 6대 의회는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생활정치를 실현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성숙하면서 커지는 지방의회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여 갈수록 전문화하고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 독주를 막고 대구 시민의 뜻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 모두는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자 저희를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6.2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되신 김범일 시장님과 우
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며,
제6대 의회가 첫발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
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대구 시민 모두의 가
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年 7月 5日

大邱廣域市議會 議長 都 二 煥

祝 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시민들의 뜨거운 기대 속에 새롭게 출범하는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당선 되신 의장님, 두 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축하와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오신 의원님들께 각별한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또 5대 때부터 계속 일해오신 의원님들께는 축하와 더불어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부시장 때 4대 때 일하시던 의원님 몇 분 다시 들어 오셨는데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 4년이 대구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탁월한 식견과 높은 경륜을 갖추신 의원님들과 손을 잡고 시정을 이끌게 된 것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가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를 향한 희망의 불씨를 지난 4년간 붙였습니다. 또 희망을 담은 큰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4년은 이 희망을 실현시켜서 준비한 큰 그릇을 알차게 채워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류 대구를 완성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대구 경제를 살려서 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 경쟁력 확보,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부상, 또 친환경 녹색도시,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 등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신공항을 밀양에 반드시 유치해서 대구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파트너로서, 의회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지도를 받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건전한 비판도 해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또 집행부가 힘이 부칠 때가 많습니다. 힘이 부칠 때는 적극 힘을 실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6대 대구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10年 7月 5日

大邱廣域市長 金 範 鎰

祝 辭

존경하는 도이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50만 대구시민의 기대와 여망을 안고 지방자치의 새 장을 열어갈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들의 개원을 교육가족과 더불어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6대 시의회 의정활동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의장단에 선출되신 도이환 의장님과 이동희·이재술 부의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역동과 도약의 활력 넘치는 영남권 시대를 맞이하여 오늘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가 개원함으로써 우리 시의 지방자치는 물론 교육자치도 그동안 이루어 놓은 튼튼한 반석 위에서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의정상의 정립은 물론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류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으며 우리 시의 힘찬 도약과 응비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1세기 무한경쟁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이 경쟁력이며 희망입니다. 유능한 인재육성이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글로벌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교육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건립하여 학생들이 오직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저하되어 있는 대구학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사교육비를 경감시켜 나가겠으며, 지역별로 특목고와 자율형학교를 균등히 배치하고 이를 지역 거점학교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으며, 고교선택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보육기능을 강화한 유아교육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등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선진 교육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안전지킴이를 확대 배치하여 학생들이 각종 사고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안전망을 재정비하여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업무를 경감시켜 나가는 등 교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늘려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구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을 외부에서 공모하고, 각급 학교의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시 전자입찰제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간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사명감을 지닌 의원님들에 의해 전국 어느 지방의회보다도 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의사결정 하나하나에 대구시민의 삶의 질이 달려 있고, 우리 대구교육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글로벌 인재육성을 지향하는 대구교육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각종 교육정책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만 5,000여 명의 대구교육 가족 모두는 의원님들의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대구가 명실상부한 교육과 문화의 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큰 축복과 기대 속에서 출범하는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을 거듭 축하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보람찬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年 7月 5日

大邱廣域市教育監 禹 東 琪

I. 集會 및 議事日程

1. 集 會

○ 집회요구자 :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장

※ 지방자치법 제45조제1항

○ 집회공고일 : 2010. 7. 1

○ 개 회 일 : 2010. 7. 5

○ 폐 회 일 : 2010. 7. 16

2. 會期 및 開議日數

가. 會期 : 12일 (누계 : 12일)

나. 開議日數

○ 본회의 : 4일 (누계 : 4일)

○ 위원회

區分	計	常 任 委 員 會							特別委員會	
		小計	運營	行政 自治	文化 福祉	經濟 交通	建設 環境	教育	豫算 決算	其他
今回	18	18	1	3	2	4	4	4		
累計	18	18	1	3	2	4	4	4		

3. 議事日程

가. 本 會 議

次數	日 時	審 議 案 件
1次	7. 5(월) 10:02	1. 의장·부의장선거 2. 제189회 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次	7. 6(화) 10:04	1. 상임위원 선임의 건 2. 상임위원장 선거 3. 운영위원 선임의 건 4. 운영위원장 선거
3次	7. 7(수) 11:03	1. 시정 현황 보고의 건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2.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4次	7.16(금) 10:03	1.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2.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4.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7.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나. 委 員 會

○ 運營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7.13(화) 16:07	1. 업무보고의 건 - 의회사무처 소관

○ 行政自治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7. 8(목) 10:00	1. 업무보고의 건 -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次	7. 9(금) 10:03	1. 업무보고의 건 - 기획관리실, 공무원교육원, 소방안전본부 소관
3次	7.12(월) 10:06	1. 업무보고의 건 - 시설관리공단 소관

○ 文化福祉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7. 8(목) 10:07	1. 업무보고의 건 - 문화체육관광국,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2次	7. 9(금) 10:01	1. 업무보고의 건 -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대구의료원 소관

○ 經濟交通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7. 8(목) 10:05	1. 업무보고의 건 -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次	7. 9(금) 10:05	1. 업무보고의 건 - 신기술산업국, 교통국 소관
3次	7.12(월) 10:50	1. 업무보고의 건 - 도시철도건설본부, 대구도시철도공사 소관
4次	7.13(화) 10:07	1. 대구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 建設環境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7. 8(목) 10:01	1. 업무보고의 건 - 환경녹지국, 환경시설공단소관
2次	7. 9(금) 10:02	1. 업무보고의 건 - 도시디자인총괄본부, 도시주택국, 대구 도시공사 소관
3次	7.12(월) 10:04	1. 업무보고의 건 - 건설방재국, 건설관리본부, 상수도사업 본부 소관
4次	7.13(화) 10:05	1.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教育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7. 9(금) 10:05	1. 업무보고의 건 -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2次	7.12(월) 10:02	1. 업무보고의 건 -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소관
3次	7.13(화) 10:03	1. 업무보고의 건 - 남부교육청, 달성교육청 소관
4次	7.14(수) 10:04	1.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2.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II. 議案接受 與 處理現況

1. 接受現況

○ 機 關 別

區 分	計	議 會				大 邱 廣城市	教育廳
		小計	議員	議長	委員會		
今 回	19	11	2	9		4	4
累 計	19	11	2	9		4	4

○ 種 類 別

區 分		計	條 例				豫算 決算	同意 承認	建議 決議	其他
			小計	制定	改正	廢止				
計	今回	19	9	4	4	1			1	9
	累計	19	9	4	4	1			1	9
議 會	今回	11	1	1					1	9
	累計	11	1	1					1	9
大 邱 廣城市	今回	4	4	2	2					
	累計	4	4	2	2					
教育廳	今回	4	4	1	2	1				
	累計	4	4	1	2	1				

2. 處理現況

가. 總 括

區 分		接 受	處 理	處 理 內 容					繫留
				可 決		否決 (廢棄)	撤回	其他	
				原案	修正				
계	금회	19	15	10	2			3	4
	누계	19	15	10	2			3	
조 레	금회	9	6	4	2				3
	누계	9	6	4	2				
예산·결산	금회								
	누계								
동의·승인	금회								
	누계								
건의·결의	금회	1							1
	누계	1							
의견청취	금회								
	누계								
규 칙	금회								
	누계								
기 타	금회	9	9	6				3	
	누계	9	9	6				3	

나. 本 會 議

區 分		接 受	處 理	處 理 內 容					繫留
				可 決		否決 (廢棄)	撤回	其他	
				原案	修正				
계	금회	15	15	10	2			3	
	누계	15	15	10	2			3	
조 레	금회	6	6	4	2				
	누계	6	6	4	2				
예산·결산	금회								
	누계								
동의·승인	금회								
	누계								
건의·결의	금회								
	누계								
의견청취	금회								
	누계								
규 칙	금회								
	누계								
기 타	금회	9	9	6				3	
	누계	9	9	6				3	

다. 委 員 會

區 分		回 附						處 理				繫留	
		計	條例 規則	豫算 決算	同意 承認	建議 決議	其他	計	附 議		不 附議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10	9			1		6	4	2			4
	누계	10	9			1		6	4	2			
운영	금회	2	1			1							2
	누계	2	1			1							
행정 자치	금회												
	누계												
문화 복지	금회	1	1										1
	누계	1	1										
경제 교통	금회	2	2					1		1			1
	누계	2	2					1		1			
건설 환경	금회	1	1					1		1			
	누계	1	1					1		1			
교육	금회	4	4					4	4				
	누계	4	4					4	4				
특별	금회												
	누계												

3. 主要議案 處理內容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286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교육감	교육	○ 대구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직 교직원 등의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원안 (7.15)	원안 (7.16)
3287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육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방안」과 관련 행정·관리업무는 본청 중심으로, 컨설팅 장학 등 현장지원업무는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행정기구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자 함.	원안 (7.15)	원안 (7.16)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288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육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지역 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지역 교육청의 역할 정립과 현장 지원 기능 강화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본청-지역교육청」 간 원활한 사무이관 근거 마련	원안 (7.15)	원안 (7.16)
3289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교육감	교육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 상임 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 등 5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원안 (7.15)	원안 (7.16)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291	대 구 광 역 시 일 자 리 센 터 설 치 운 영 및 지 원 조 례 안	시장	경제 교통	○ 일 자 리 센 터 의 설 치 목 적, 기 능 및 수 행 업 무 에 대 해 정 함. ○ 위 탁 운 영 및 일 자 리 센 터 운 영 의 성 과 분 석 등 일 자 리 센 터 운 영 에 관 한 사 항 을 정 함	수정 (7.13)	수정 (7.16)
3293	대 구 광 역 시 도 로 명 주 소 등 표 기 에 관 한 조 례 전 부 개 정 조 례 안	시장	건설 환경	○ 도 로 명 주 소 의 사 용 을 촉 진 하 도 록 함. ○ 대 구 광 역 시 도 로 명 주 소 위 원 회 를 구 성 · 운 영 에 관 하 여 정 함.	수정 (7.13)	수정 (7.16)
3295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	임시 의장		○ 의 장 : 도이환 ○ 부의장 : 이동희 이재술		선거 (7.5)
3296	제189회 대구 광 역 시 의 회 임 시 회 회 기 결 정 의 건	의장		○ '10. 7. 5 ~ 7. 16 (12일간)		원안 (7.5)
3297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장		○ 서명의원 - 김화자, 송세달		원안 (7.5)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298	상임위원 임의 건	선 의장		○ 행정자치위원회(6명) - 이윤원, 이재술, 김덕란, 김원구, 신현자, 주문희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6명) - 송세달, 도재준, 김의식, 이재녕, 박상태, 배지숙 의원 ○ 경제교통위원회(6명) - 김화자, 권기일, 이재화, 오철환, 박돈규, 박성태 의원 ○ 건설환경위원회(6명) - 홍창호, 장경훈, 양명모, 정순천, 강재형, 김대성 의원 ○ 교육위원회(9명) - 정해용, 김규학, 이동희, 윤석준, 김경식, 최병욱, 장식환, 남정달, 이상규 의원		원안 (7.6)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299	상 임 위 원 장 선거의 건	의장		○행정자치위원장 - 김덕란 의원 ○문화복지위원장 - 김의식 의원 ○경제교통위원장 - 박돈규 의원 ○건설환경위원장 - 양명모 의원 ○교육위원장 - 장식환 의원		선거 (7.6)
3300	운영위원 선 임의 건	의장		○운영위원회(7명) - 김원구, 배지숙, 오철환, 홍창호, 김규학, 송세달, 정해용 의원		원안 (7.6)
3301	운 영 위 원 장 선거의 건	의장		○운영위원장 - 송세달 의원		선거 (7.6)
3302	상 임 위 원 회 위원 변경 선 임의 건	의장		○운영위원회 위원 - 정해용→김대성 의원으로 변경		원안 (7.7)
3304	상 임 위 원 회 위원 변경 선 임의 건	의장		○송세달 의원 (문화복지→교육) ○정해용 의원 (교육→문화복지)		원안 (7.16)

4. 繫留議案

議案 番號	議 案 名	上 程 日		繫留日	繫留事由
		委員會	本會議		
3290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		2010. 7	
3292	대구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경제교통		2010. 7	
3294	대구광역시 옴부즈만 조례안	운 영		2010. 7	
3303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운 영		2010. 7	

Ⅲ. 本會議 傍聽 現況

區 分		計	1次 (7.5)	2次 (7.6)	3次 (7.7)	4次 (7.16)	
계	금 회	1			1		
	누 계	1					
학 생	금 회						
	누 계						
시 민 단 체	금 회	1			1		
	누 계	1					
일반인	금 회						
	누 계						

第190回 第1次 定例會

I. 集會 ㄛ 議事日程	35
1. 集 會 / 35	
2. 會期 ㄛ 開議日數 / 35	
3. 議事日程 / 36	
II. 議案接受 ㄛ 處理現況	42
1. 接受現況 / 42	
2. 處理現況 / 43	
3. 主要議案 處理內容 / 46	
4. 繫留議案 / 53	
III. 市 政 質 問	54
1. 質問現況 / 54	
2. 質問內譯 / 55	
IV. 請願 ㄛ 民願處理 現況	86
1. 請 願 / 86	
2. 民 願 / 86	
V. 5分 自由發言 現況	87
VI. 本會議 傍聽 現況	95

開 會 辭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가 개원되어 성공적으로 원구성을 마친 후 처음 열리는 제1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지난 여름철에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은 비회기 동안에도 움부즈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노곡동 침수피해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또 대책을 강구하였고, 초선의원님들의 공부모임인 동인포럼을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의원연찬회를 열어 효율적인 예·결산심의기법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을 배우는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지역일꾼이자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정말 열심히 연구하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지구촌은 이상기후와 각종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 여름 평균기온이 최고치에 달해 전기사용량 급증에 따른 정전사태의 우려 속에 수시로 강타하는 국지성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대구는 폭염도시로 유명합니다만 이제 집중호우에도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한 달 사이에 두 번이나 발생한 노곡동 침수피해는 전형적인 인재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제7호 태풍인 곤파스가 북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태풍의 중심이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강화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아울러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를 당한 수재민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피해복구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4년 만에 53% 선마저도 무너져 지자체의 자체 생존능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구는 오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청년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건설경기는 침체되어 주택거래가 크게 줄고 집값도 약세를 보이면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는 등 지역의 재정문제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대구시와 교육청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각종 조례안을 비롯한 여러 의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예산안 심사의 전문성 강화와 의원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영남권

신공항유치 지원 등 지역현안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시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민이 행복해하는 도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우리 의회가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할 과제는 대구시와 교육청의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입니다.

예산집행을 꼼꼼하게 심의하고 세밀하게 감독해서 시민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지방 살림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각종 정치성 개발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재정운용의 건전성에 정말 문제가 없었는지,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구 시민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는 회기가 되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는 자세로 꼼꼼한 결산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구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에게 시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年 9月 1日

大邱廣域市議會 議長 都 二 煥

I. 集會 및 議事日程

1. 集 會

- 집회요구자 :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 집회공고일 : 2010. 8. 20
- 개 회 일 : 2010. 9. 1
- 폐 회 일 : 2010. 9. 17

2. 會期 및 開議日數

가. 會期 : 17일 (누계 : 29일)

나. 開議日數

○ 본회의 : 5일 (누계 : 9일)

○ 위원회

區分	計	常 任 委 員 會							特別委員會	
		小計	運營	行政 自治	文化 福祉	經濟 交通	建設 環境	教育	豫算 決算	其他
今回	19	15	1	3	3	3	4	1	3	1
累計	37	33	2	6	5	7	8	5	3	1

3. 議事日程

가. 本 會 議

次數	日 時	審 議 案 件
1次	9. 1(수) 10:14	1. 제19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次	9. 2(목) 10:03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次	9. 3(금) 10:05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次	9.10(금) 10:05	1.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 원회 구성 결의안 2.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대구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 의안 4.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次	9.17(금) 10:03	1. 5분 자유발언의 건 2.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촉구 결의안 3.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5次	9.17(금) 10:03	6.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9.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더 큰 대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 조사규명실무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나. 委 員 會

○ 運營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9. 8(수) 10:08	1.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대구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의회사무처 소관

○ 行政自治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9. 6(월) 10:10	1.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2次	9. 7(화) 10:07	1.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3次	9. 8(수) 14:10	1. 대구광역시 더 큰 대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기획관리실, 소방안전본부 소관

○ 文化福祉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9. 6(월) 10:05	1.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次	9. 7(화) 10:03	1.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문화체육관광국,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3次	9. 8(수) 14:00	1.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經濟交通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9. 6(월) 10:15	1.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소관
2次	9. 7(화) 10:07	1.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교통국 소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3次	9. 8(수) 14:04	1. 대구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建設環境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9. 6(월) 10:02	1.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환경녹지국, 도시디자인총괄본부, 도시주택국 소관
2次	9. 7(화) 10:01	1.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건설방재국, 건설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3次	9. 8(수) 14:00	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次	9.10(금) 09:34	1. 노곡동 침수피해조사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教育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9. 8(수) 14:02	1.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9.13(월) 10:02	1.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 인의 건
2次	9.14(화) 10:05	1.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2.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 인안(계속)
3次	9.15(수) 10:05	1.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東南圈新國際空港密陽誘致特別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9.15(수) 15:06	1. 동남권신국제공항밀양유치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 2. 동남권신국제공항밀양유치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Ⅱ．議案接受 與 處理現況

1. 接受現況

○ 機 關 別

區 分	計	議 會				大 邱 廣城市	教育廳
		小計	議員	議長	委員會		
今 回	27	18	11	6	1	7	2
累 計	46	29	13	15	1	11	6

○ 種 類 別

區 分		計	條 例				豫算 決算	同意 承認	建議 決議	其他
			小計	制定	改正	廢止				
計	今回	27	10	4	5	1	2	3	4	8
	累計	46	19	8	9	2	2	3	5	17
議 會	今回	18	5	3	2			1	4	8
	累計	29	6	4	2			1	5	17
大 邱 廣城市	今回	7	5	1	3	1	1	1		
	累計	11	9	3	5	1	1	1		
教育廳	今回	2					1	1		
	累計	6	4	1	2	1	1	1		

2. 處理現況

가. 總 括

區 分		接 受	處 理	處 理 內 容					繫留
				可 決		否決 (廢棄)	撤回	其他	
				原案	修正				
계	금회	27	29	26	3				2
	누계	46	44	36	5				
조 레	금회	10	12	9	3				1
	누계	19	18	13	5				
예산·결산	금회	2	2	2					
	누계	2	2	2					
동의·승인	금회	3	3	3					
	누계	3	3	3					
건의·결의	금회	4	4	4					1
	누계	5	4	4					
의견청취	금회								
	누계								
규 칙	금회	1	1	1					
	누계	1	1	1					
기 타	금회	7	7	7					
	누계	16	16	13					

나. 本 會 議

區 分		接 受	處 理	處 理 內 容					繫留
				可 決		否決 (廢棄)	撤回	其他	
				原案	修正				
계	금회	29	29	26	3				
	누계	44	44	36	5			3	
조 레	금회	12	12	9	3				
	누계	18	18	13	5				
예산·결산	금회	2	2	2					
	누계	2	2	2					
동의·승인	금회	3	3	3					
	누계	3	3	3					
건의·결의	금회	4	4	4					
	누계	4	4	4					
의견청취	금회								
	누계								
규 칙	금회	1	1	1					
	누계	1	1	1					
기 타	금회	7	7	7					
	누계	16	16	13				3	

다. 委 員 會

區 分		回 附						處 理					繫留
		計	條例 規則	豫算 決算	同意 承認	建議 決議	其他	計	附 議		不 附議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18	11	2	2	3		20	17	3			2
	누계	28	20	2	2	4		26	21	5			
운영	금회	5	2			3		5	5				2
	누계	7	3			4		5	5				
행정 자치	금회	5	5					5	4	1			
	누계	5	5					5	4	1			
문화 복지	금회	2	2					3	3				
	누계	3	3					3	3				
경제 교통	금회							1		1			
	누계	2	2					2		2			
건설 환경	금회	2	2					2	1	1			
	누계	3	3					3	1	2			
교육	금회	4		2	2			4	4				
	누계	8	4	2	2			8	8				
특별	금회												
	누계												

3. 主要議案 處理內容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290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문화 복지	○ 종합복지회관 임대아파트의 사용료를 기존의 정액징수(5,700원)에서 정부고시기준의 표준임대료를 적용하여 산출식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변경함.	원안 (9.6)	원안 (9.17)
3292	대 구 광 역 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 조 례안	시장	경제 교통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 발전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수정 (9.8)	수정 (9.17)
3303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정순천 의원 외 9인	운영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 : 7인 - '11. 12. 31까지	원안 (9.8)	원안 (9.10)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306	대 구 광 역 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김대성 배지숙 의원 외 5인	운영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및 윤리특 별위원회를 상 설화하고 위원 정수, 임기를 정함.	원안 (9.8)	원안 (9.17)
3307	동남권 신국 제공항 밀양 유치 특별위 원회 구성 결 의안	박돈규 오철환 의원 외 7인	운영	○동남권 신국제 공항 밀양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 : 7인 - '11. 8. 31까지	원안 (9.8)	원안 (9.10)
3308	대구광역시의 회 윤리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윤원 의원	운영	○대구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 : 7인이내 - '12. 6. 30까지	원안 (9.8)	원안 (9.10)
3309	대구광역시의 원 신분증 규 칙 일부개정 규칙안	홍창호 김규학 의원 외 5인	운영	○기존의원 신분 증을 개선하여 신분표시 뿐만 아니라 출입관리, 보안강화 등의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전자식으로 제작하고자 함.	원안 (9.8)	원안 (9.17)
3310	대 구 광 역 시 행정민원 보 상 조례안	이윤원 의원 외 6인	행정 자치	○행정착오와 처리 지연에 따른 보 상금지급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함. ○민원보상 심의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	원안 (9.6)	원안 (9.17)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311	대 구 광 역 시 참 전 유 공 자 예 우 및 지 원 에 관 한 조 례 안	권기일 장경훈 의원 외 7인	문화 복지	○ 참전유공자의 정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의 추진 내용을 정함. ○ 참전명예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원안 (9.6)	원안 (9.17)
3312	대 구 광 역 시 아 동 학 대 예 방 및 보 호 촉 진 에 관 한 조 례 안	배지숙 송세달 도재준 의원 외 7인	문화 복지	○ 아동학대예방과 보호에 대한 시 장의 책무를 명 백히 하고 아동 학대예방 및 보 호위원회의 설치, 관계기관 간 협 력체계구축과 신 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예방교육 을 강화하고, 아 동의 건강한 성 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원안 (9.6)	원안 (9.17)
3313	대 구 광 역 시 도 시 계 획 조 례 일부개정 조 례안	정순천 배지숙 의원 외 6인	건설 환경	○ 문화예술진흥법 에 따른 용도지구 의 지정을 규정 ○ 문 화 지 구 안 의 시설물의 용도와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용도지구 의 지정목적에 필요한 범위안에 서 별도의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수정 (9.8)	수정 (9.17)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314	2009회계연도 대 구 광 역 시 세입세출 결 산 승인의 건	시장	예결위	○세입결산액 - 5,616,451백만원 ○세출결산액 - 5,124,173백만원	원안 (9.14)	원안 (9.17)
3315	2009회계연도 대 구 광 역 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장	예결위	○예산액 : 85,185백만원 - 지출결정액 : 4,278백만원 - 지 출 액 : 4,107백만원	원안 (9.14)	원안 (9.17)
3316	대 구 광 역 시 더 큰 대구 만들기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장	행정 자치	○더 큰 대구 만 들기 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 등을 정함.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설 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조례의 유효기 간을 '14. 6. 30 까지로 정함.	원안 (9.8)	원안 (9.17)
3317	대 구 광 역 시 지 방 공 무 원 정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시장	행정 자치	○지방공무원 정 원의 총수 4,864명을 5,039 명으로 하고, 소 방공무원의 정 원 1,703명을 1,878명으로 함. ○비서실장의 직 급을 조정(지방 별정4급 → 지 방서기관)함.	수정 (9.8)	수정 (9.17)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318	대 구 광 역 시 지방별정직공 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행정 자치	○ 별 정 직 공 무 원 관련 법령의 개 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관련 규정 을 일부 정비	원안 (9.6)	원안 (9.17)
3319	대 구 광 역 시 일제강점하강 제동원피해진 상규명실무위 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 례안	시장	행정 자치	○ 일제강점하 강 제동원피해진상 규명등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 됨에 따라 대구 광역시 일제강 점하강제동원피 해진상규명실무 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원안 (9.6)	원안 (9.17)
3320	대 구 광 역 시 건축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시장	건설 환경	○ 친 환경 건축물 인증기준이 마 련된 용도 중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신축 을 허가할 경우 친 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할 수 있음. ○ 대지안의 공지 기준 중 ‘인접 대지 경계선으 로부터 건축물 까지 띄어야 하 는 거리’ 대상 건축물에 고시 원을 추가함.	원안 (9.8)	원안 (9.17)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321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교육감	교육	○세입결산액 - 2,315,420백만원 ○세출결산액 - 1,947,105백만원	원안 (9.15)	원안 (9.17)
3322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교육감	교육	○지출결정액 : 2,266백만원 ○지출액 : 2,266백만원	원안 (9.15)	원안 (9.17)
3323	제190회 대구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	의장		○'10. 9. 1 ~ 9. 17 (17일간)		원안 (9.1)
3324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김규학의원		○출석공무원 - 시장, 교육감		원안 (9.1)
33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위원장 - 권기일 의원 ○부위원장 - 이재화 의원 ○위원 - 김화자, 정순천, 정해용, 이상규, 김대성, 김원구, 박상태, 김규학, 윤석준 의원		원안 (9.1)
332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서명의원 - 이윤원, 권기일		원안 (9.1)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327	대구광역시의 회 의원 사직 의 건	의장		○사직의원 - 이상규		원안 (9.3)
3328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상규 위원 사 직에 따라 남정달 위원을 선임함.		원안 (9.3)
3329	특 별 위 원 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2011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지원 특위> ○위원장 - 박상태 의원 ○부위원장 - 윤석준 의원 ○위원 - 신현자, 김화자, 홍창호, 권기일, 이재녕 의원 <동남권신국제공항 밀양유치 특위> ○위원장 - 오철환 의원 ○부위원장 - 배지숙 의원 ○위원 - 주문희, 장경훈, 김규학, 강재형, 김대성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이윤원 의원 ○부위원장 - 신현자 의원 ○위원 - 이재술, 도재준, 장경훈, 이동희, 송세달 의원		원안 (9.10)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330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축 구 결의안	송세달 의원 외 6인		○수도권의 계획 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에 심의중이나, 수도권 규제완 화는 지역간 대 립과 갈등을 초 래하고 지역균 형발전에 저해 되므로 해당 법 률안 제정 철회 를 요구함.		원안 (9.17)
3331	동남권 신국 제공항 밀양 유치 특별위 원회 활동계 획안 채택의 건	위원회		○활동기간 - ‘10. 9. 10 ~ ‘11. 8. 31 (12개월간)		원안 (9.17)

4. 繫留議案

議案 番號	議 案 名	上 程 日		繫留日	繫留事由
		委員會	本會議		
3294	대구광역시 움부 즈만 조례안	운 영		2010. 7	
330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운 영		2010. 8	

Ⅲ. 市 政 質 問

1. 質問現況

가. 質問議員數：10名(累計：10名)

나. 質問件數

○ 對象機關別

區 分	計	大邱廣域市	教 育 廳
금 회	18	16	2
누 계	18	16	2

○ 分 野 別

區 分	今 回	累 計
계	18	18
일 반 행 정		
문 화 체 육		
교 육	2	2
경 제 · 산 업	4	4
환 경 · 녹 지	2	2
상 · 하 수 도		
보 건 · 복 지	1	1
교 통	4	4
도 시 계 획		
건 설 주 택	4	4
소 방		
기 타	1	1

2. 質問内譯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재녕	대구시가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공영개발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의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과 문제점을 대구시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대구스타디움 서편주차장의 지하공간개발사업에 4만 8,868㎡ 중 4만 6,635㎡의 초대형 상업시설이 현재 조성되고 있고, 범어네거리 지하보도에 72개 점포에 2,256㎡의 의류매장이 들어설 예정임. 그리고 대구미술관 민간투자사업에 예식업을 하고자 호텔식 컨벤션센터 4,461㎡의 상업시설이 현재 미술관과 함께 건축 중이고, 대구 뮤지컬 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에도 2,311㎡의 음식점 등 상업시설이 계획 중임. 그리고, 동구 율하 택지개발지역에 롯데아울렛과 롯데마트가 준공되어 영업하고 있고, 봉무동 이시아폴리스에 대규모	공영개발사업에 민투자사업이 우리 지역 상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특히 그중에서 대표적인 두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림.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재정여건상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런 사업들이 사업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대구의 미래 가치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림. 우선 대구스타디움 서편주차장 지하공간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면세점 유치 및 주변 상권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구스타디움 서편주차장 지하공간개발사업은 현재 대구스타디움의 만성적 적자운영을 개선하고,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명소로 지금 발전하고 있음. 오신 분들에게 특색 있는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임시시설이지만 미디어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있었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판매시설, 공연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재녕	롯데아울렛매장이 건립 예정임.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곳의 민간 투자사업과 특정 기업으로부터 대구시민을 위해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의 활용방안을 예를 들어서 대구시의 정책 결정에 의해 진행되는 각종 사업에 내재된 문제점들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과 대안을 묻고 향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1. 첫째 대구스타디움 서편 지하공간개발사업과 관련 특히,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면세점을 설치한다는 계획도 있으나, 현재 면세점의 유치가 가능한 상황인지 묻고 싶고 면세점이 유치되지 못할 경우 면세점으로 계획된 시설을 어떤 업종으로 변경·승인을 해줄 그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람. 또한 대형 상업시설입지에 따른 주변지역의 상권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대책과 면세점 승인이 만료되는 5년 후	등 전액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고,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임.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면세점 개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추진했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그 결과 정부에서도 마침내 금년 7.16 대규모 국제행사인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라든지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기간 중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의 쇼핑 편의를 위해 경기장 또는 선수촌 주변 내에 시내 면세점을 한시적으로 설치, 이용을 허용하는 관세청 고시가 개정·공포되기에 이르렀음. 면세점을 설치하는 자체는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관세청에서 앞으로 고시가 되면 결국 면세사업자가 들어와야 면세점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한시적으로 설치·허용했으나 이것은 연장하거나 또는 항구적으로 바꾸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림. 그래서 면세점 개설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기 보다는 꼭 유치되도록, 그리고 대구에 면세점이 꼭 유치되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다음으로 대구스타디움 지하공간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재녕	의 계획도 답변바람. 2. 둘째, 범어네거리 지하보도의 지하상가 조성 사업과 관련, 초대형 유통판매시설이 들어서는 대구스타디움 지하공간 개발사업과 더불어 범어네거리 지하상가에 초기 명품의류매장 유치계획에서 운영 희망자가 없다는 이유로 수도권권의 의류유통업자에게 일괄 위탁하여 중·저가 의류매장이 조성된다면 기존 지상에 골목 상권은 쇠퇴하거나 없어지게 됨. 특히, 서민들의 생계형 의류매장인 범어동 일원의 많은 상가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있는 대구의 토종 아울렛 의류매장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제시는지와 아울러 주변 상권을 보호하면서 범어네거리 지하상가의 특화가 가능한 다른 시설의 도입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로 인해서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고, 그 전에 대형 할인매장 같은 것을 개장하겠다는 제안이 여러 건 있었으나 거절했음. 그러나 이 시설은 대형할인점보다는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주변 상가 간 상당한 거리가 있음. 오히려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시설이 되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고, 또 노력해 나가겠음. 개점 이후에 추이를 면밀하게 보면서 주변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다음 범어네거리 지하상가 조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림.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주업체 공모사업을 중단시키고 필요하다면 시민들을 위한 행정시설, 공공시설, 갤러리라든지 또는 문화강좌,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상업시설은 그 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겠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류유통업, 대형유통업에 들어가서 주변 상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도록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림. (시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배지숙	인구대비 전국 최대 규모의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대구의 현실에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역경제나 서민경제 활성화는 요원하다는 신념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함. 향후 대구의 주택시장 동향을 분석해보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일부가 전세로 전환되어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는 있겠으나 시장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주택 실수요 층의 변화와 대형주택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아파트에 대한 투자의 기대수익 감소로 인한 가수요 감소 및 경기불안으로 인한 유지관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고, 기존주택의 매매 감소로 신규주택 입주 급감 및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 등 전체적으로 대구의 주택시장 동향은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미분양주택 문제가 단기적인 지역 경제에서는 제일 큰 문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 그 직접적인 원인은 미분양 문제라고 생각하며, 건설 경기가 우리나라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18%로 최근 통계가 나왔음. 특히, 서민경제, 주택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건설업체, 일용근로자, 나아가서는 커튼, 샷시 업체, 그 주변 인테리어까지 해서 엄청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여파로 서민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에 한 방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은 찾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림. 첫째, 시에서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특히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접촉하고 노력해왔음. 최근 지난 7월 청와대에서 개최된 시·도지사 회의에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드렸고,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에도 지방 미분양 아파트, 특히 대구가 제일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호소도 하고 건의도 드렸음. 그래서 그동안 반영된 시책도 많이 있으나 제일 중요하게 요구한 양도세 부과기준 변경문제가 아직 반영이 안 되었고, 분양가 상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배지숙	따라서 대구시의 대응전략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사례 및 정책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분양 주택 문제가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방정부로서 대구시가 제 역할을 다 하였는지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음. 각종 지역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들이 의도한 것과 달리 대부분 아파트 건설을 위주로 이루어져 필요 이상의 주택이 공급된 것이라 생각함. 그동안 대구시에서 중앙정부에 대구상의회 공동으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책건의를 한 것을 제외하고 대구시 자체적으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대구시가 집행한 주택공급 정책이나 미분양 주택 해소 정책이 대구시의 중장기 주택시장에 적합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8.29 부동산	한제 폐지가 일부 주상복합에는 반영이 되었으나 일반 아파트에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반영이 안 됐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적으로 지난 며칠 전에, 8.29일 정부 부동산대책이 미흡하기는 하나, 생애 최초 주택자금 구입 신설,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 등 우리가 또 활용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책도 있음. 한편 실질적으로 분양을 촉진시키느라고 노력했으나, 우선 이군사령부 50사단하고 협조해서 군관사 건설을 취소하고 148세대 정도 매입하는 실적이 있었고, 그동안 대구에 있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 공단과 있는 대기업체들에 미분양 아파트 또는 기존 아파트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현재 대구은행에서 일부 매입한 실적이 있고, 다른 부분은 아직 실적이 없음. 이 부분은 실적이 좀 나오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 주택정책 수립에 대해서 시가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인정함.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달서구의 경우 어떤 과도기에 홍보위주의 정책과 시장 여건의 변화의 기로에서 적절치 못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함.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배지숙	대책은 대구와 같이 미분양 주택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지방에는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음. 따라서 대구 실정에 맞는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함. 즉, 현재 대구시에 설치되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관련 TF조직을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효성 높은 조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셋째, 대구에 진출해 있는 외지 대형건설사들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외지 건설업체들은 당초 분양하였던 신규주택의 가격을 대폭 낮춘 손절매식 할인분양을 하고 있는 실정임. 대구시에서는 그동안 주택건설 업체들이 행하고 있는 할인분양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할인분양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기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람.	2008년도에 처음으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했으나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 심지어 앞으로 젊은이들이 결혼도 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도 부모하고 다시 사는 추세가 시작됐다고 보는 관점이 많음. 이렇게 볼 때 주택시장이 상당히 바뀔 것으로 보고, 예측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실정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태스크포스팀은 현재 전문가 등 10명으로 했으나 대폭 보강하고, 특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넣어서 미분양아파트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음. 할인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개입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음. 할인을 하겠다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유독 대구가 그것을 막는 것은 적절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수단도 없음. 다만, 이미 분양받은 분들하고의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도록 해나가겠음. 현재 당면한 단기적인 지역경제 문제는 미분양아파트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지혜와 노력을 동원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림. (시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권기일	1. 역외 대형유통업체의 지역 입점이 야기하는 현안과 대형유통업체들의 저조한 지역 기여를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함. 현재 대구는 '09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서울, 부산 다음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및 SSM의 수가 많은 도시임. 역외유통업체의 지역 진출은 대구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지원정책의 효과를 훼손하고 있음. 역외대형유통기업 중 롯데가 대구의 유통 강자로 부상한 것으로 평가받는데 롯데백화점과 SSM 등이 지역 유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특히 최근에 문을 연 롯데쇼핑프라자의 경우 대구시와 동구청 간에 의견차이가 있었음에도 대구시가 이를 허가한 배경이 있다면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역외 대형유통업체의 잇단 대구 진출이 있는데 이들의 지역 사회 기여	우리 지역에 있는 백화점은 모두 6개로 매장 면적은 5만 914㎡로 전체 42%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 SSM 수는 총 27개이며 롯데에서 운영하는 롯데슈퍼는 15개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음. 현재 상황을 보면 인구 대비 전체 대형유통업체의 숫자로 볼 때 1개소당 대구는 4만 9,000명 정도로, 전국 7대 도시 평균 4만 1,000명에 비해 인구가 많아 대형할인매장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대형마트 1개소당 인구는 13만 9,000명으로 7대 도시 중 서울을 제외하고는 비율이 가장 낮음. 또 SSM은 1개소당 9만 2,000명으로 타 지역 평균 7만 8,000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음. 그러나 백화점은 1개소당 41만 6,000명으로 전국 평균 43만 3,000명보다 높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편임. 최근 대형유통업체 간에 지역기여도 이행에 대한, 예를 들어서 SSM하고 백화점하고 형평성문제가 대두되면서 추진계획을 보완하여 백화점과 SSM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의 지역기여를 앞으로 요구하겠음. 이와 함께 롯데백화점과 같이 '06.12월 이전에 입점하여 지역기여실적이 없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지역기여를 이끌어내도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권기일	가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으로 롯데쇼핑프라자 개점에 관한 동구청과 심의위원이 제기한 문제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의 문제점과 을하지구 입주가 완료될 경우 도로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함. 첫째, 롯데프라자와 접한 안심로의 도로폭을 사업지 서측 안심로의 도로폭과 연계하여 확폭을 요구하였으나 실제로는 3m만을 확폭하여 41m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둘째, 주차장 추가 확보를 요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정대비 202.2%, 수요대비 106.7%의 주차시설을 계획하여 주차면을 확보하였는데, 이를 수용한 대구시의 판단근거는? 셋째, 북측 안심로는 주간선도로로서 도로변의 대형 판매시설을 이용하는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안심로의 교통흐름에 지장이 예상되므로 사업지 전구간 완화차로	록 노력하고, 홈플러스 성서점의 공공목적기부금으로 약속한 10억 원은 9월 중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 지역기여도 이행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롯데쇼핑프라자가 2008년 10월 우리 시에 제출한 지역경제상생이행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점검해본 결과 인력고용이라든지 용역서비스라든지 일부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영업매출의 지역은행 예치와 같은 약속은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아백화점을 인수한 이랜드리테일의 경우 당초 8월에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시와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므로 9월 이후로 결정하도록 다소 연기한 상태임. 롯데쇼핑프라자 허가과정과 관련, 롯데쇼핑프라자는 4차순환선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시가 수립한 지침에 의한 진입역제 대상이 아니므로 '08.10월 롯데 측에서 제출한 지역경제상생협약이행을 전제로 허가하게 되었음. 또한 인근지역 재래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형할인점의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약 1,100㎡를 감축해서 8,200㎡로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권기일	와 셋백(Set-back)을 요구했으나 사업지 북측 안심로 구간에 우회전 전용차로를 설치하고, 기존 버스정류장에 버스 베이만을 설치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음. 동구청과 심의위원들의 요구사항들이 미수용 또는 부분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대책과 시장님의 견해는? 다음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에 관한 의견으로, 도시계획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사업 추진을 막을 수 없는 문제로 대구지역에 들어서는 백화점 및 할인점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건축승인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통과 의례가 아닌 지,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마지막으로 롯데쇼핑프라자 개점과 함께 율하택지개발사업지구에 입주주민들이 입주함으로써 도로교통에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하며, 지금까지 대구시의 대책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축소시켰으며, 또 동구상인연합회와 지원협약을 체결하도록 해서 협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우리 시는 앞으로도 시의회, 대형유통업체,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영세상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지난 7.12 개점한 율하지구 롯데쇼핑프라자와 관련, 교통정체의 원인인 안심로상 유턴(U-turn)폐쇄와 함께 버스정류장 노면표시와 교통지도원을 배치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였음. 롯데쇼핑프라자와 접해있는 안심로 도로폭을 교통영향평가지 12m 확폭을 요구하였으나 3m만을 확폭하게 된 데 대하여, 이 지역은 이미 율하택지개발사업으로 3m가 셋백(Set-back)되어 있는 상태에서 롯데쇼핑에서는 버스베이만을 셋백하는 것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였음. 위원회에서는 버스베이만 셋백할 것이 아니라 롯데쇼핑과 접한 안심로 전 구간에 3m를 셋백하는 것으로 조건부 심의·의결하였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권기일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주차장 250% 확보문제와 관련, 롯데쇼핑의 법정주차대수는 557대이나 교통관계전문가는 적정주차대수를 1,069대로 판단하였고 롯데쇼핑에서는 주차대수를 1,126대로 제시하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이를 수용하게 되었음.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심의과정에서 동구청과 심의위원들께서 제시한 것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대부분 전부 또는 부분 수용되었으나 용도별 주차장 분리설치요구에 대해서는 용도 구분 없이 같이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심의위원회에서 미수용하였음. 마지막으로 율하택지개발사업지구 3,000세대 아파트 입주 시 교통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율하지구 서편 율하천에서 율하역 삼거리 간 도로와 롯데쇼핑과 접한 안심로는 확정되었고, 율하2지구 남편에서 율하교 간 도로와 율하지구 동편에서 안심로 간 도로는 현재 확장공사 중임. 그밖에도 대중교통의 편리한 환승을 위해 도시철도 신기업과 율하역 출입구에 자전거 주차대를 설치하였고 시내버스 노선도 조정해 나가고 있음. (교통국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화자	1. 먼저, 죽어가는 중앙로 주변 상권 활성화 대책과 대중에게 고통을 주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원점에서 새로 검토하고 보완하여 재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은 98억원의 사업비로 '09. 2월 착공하여 12월에 조성 완료하였음. 짧은 공기와 부실·날림 공사로 인해 조성 완공 8개월 만에 크고 작은 보수를 50여 차례 하였으며, 도로지반 침하 및 균열로 11군데를 지난 6월3일과 4일 이틀간 포장 절삭 및 덧씌우기 공사를 하였으나, 부실·날림공사로 시민의 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전면 재시공하라고 언론에서 연일 지적하는데도 근본적인 대안이나 개선책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음.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연계한 주변 달구벌대로, 한일로, 태평로 등 2차 우회선 주간선도로의 문제점과 대구시 교통행정을 전반적으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재검토와 관련,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노선버스와 거주민 소유차량은 전일 통행하고 택시는 22:00 ~ 익일 09:00까지 통행하며 조업차량은 통행증을 발부하여 영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허용하고 있음. 중앙로 여건으로 볼 때 택시와 승용차를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모든 시간대에 진입토록 하는 것은 과거 중앙로보다 더욱 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다만, 택시에 대하여는 불법주정차 금지, 운행시간 준수 등 택시업계의 자정노력 등 교통여건을 분석한 후 버스통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택시 통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계획임.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에 맞춰 중앙로 주변도로 교통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유니온호텔 앞 좌회전(동→남) 허용, 경상감영길 직진(동→서)과 공평네거리 좌회전(남→서) 허용 등을 시행해 본 결과, 시행 전·후 주변도로의 교통량 변화는 없으나, 일부 구간(서성로·태평로)은 교통 장애가 있어 신호체계 조정,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집중관리하겠음. 북성로, 약령지에서 중앙로 진출입 허용부분과 관련하여,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취지를 살리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화자	재검토하시어 지반 침하, 부실 시공 등으로 누더기가 된 중앙로를 원점에서 재설계·재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원상복구하여 대구의 중심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주차장화되어 가는 2차 우회선 내의 교통정책을 전면 수정·보완하여 재정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2.둘째,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하는 판매 및 관람 집회시설인 반월당 현대백화점 신축 준공에 따른 향후 주변 도로의 교통 대책과 중앙로 대구역에서 북성로 방향, 약령길에서 중앙로 반월당네거리 방향 진·출입 통제로 인한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함. 현대백화점 차량 진·출입구 현황도를 검토해보면 대형 판매·집회시설인 현대백화점이 개장되는 2011년 예상 발생 교통량은 1일 14시간 기준 진·출입 6,850대에서 6,760대, 첨두시 1시간에 830대 내지 910대의 차	면서 북성로와 약령길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상가변영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인과 교통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이면도로 교통처리 대책을 마련 중임. 중앙로 도로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균열 및 침하 원인은 포장두께 부족, 지하수위 이동으로 인한 세립토사 유실로 하부지반 이완, 우수시 노면수 침투로 인한 지반약화 및 포장변이 등의 원인으로 생각됨. 8월 하순경 균열 및 침하가 큰 부분에 대하여 포장전면 철거 후 지반다짐과 함께 재포장을 시행하였음. 향후 중앙로 재시공에 대하여는 원인조사와 분석을 거쳐 학계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음. 종합교통정보센터 설립 검토와 관련하여, 기능별로 분산·운영되고 있는 각종 교통업무를 통합·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 시민 교통정보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교통정보센터의 설립이 필요함. 종합교통정보센터 설립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설립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음. 현대백화점 신축에 따른 주변도로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내년 7월경 현대백화점 개점 시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화자	량이 몰리면 주변 중심도로는 물론이고 2차 우회선 밖의 수 킬로미터까지 교통마비가 될 것임. 특단의 교통대책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시간과 기름을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검토하시어 원활한 교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3.셋째,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서민 경제 회복을 위하여 '06.2.6자로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 향상 및 신규 진입 억제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외지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진입시 지역 기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명시하였음. 대구시는 대형 판매 및 관람집회시설인 현대백화점보다 교통유발이 적은 민간아파트 사업자에게 부과한 조건부 기부채납 시설 및 사업비는 상동로~두산로 도로 건설 173억원, 무학로 건설 사업비 230억원, 범어네거리 지하보도 건설	각종 경품행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교통량이 증가와 정체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버스정류장 문제와 반월당네거리 좌회전(봉산육거리→명덕네거리) 허용, 달구벌대로 U-turn지점 운영개선, 약령시 이면도로 교통체계 개선 등에 대하여 교통전문가, 관계자 등과 검토하여 준공시 교통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특히, 주차공간은 인접한 주차장을 적극 활용토록 지도할 계획이며, 대기차량 해소를 위한 주차안내원 배치, 층별 주차안내 전광판 설치 등을 지도해 나가겠음. (시장) 대형유통업체의 지역기여사업 이행 방안과 관련하여, 현대백화점이 제출한 『지역기여 이행계획서』의 주요내용은 첫째, 대구은행 장기성 예금 500억원 예치 및 별도자금팀 운영, 둘째,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시 70%이상 지역업체 참여, 셋째, 지역생산물 구매 및 지역인력 채용확대, 넷째, 용역서비스 지역업체 발주 등임. 이 중 지역기여를 이행한 사항은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재원으로 500억원을 장기성 예금으로 예치한 것임. 우리시는 『지역기여 이행계획서』를 통해 약속한 건축 및 인테리어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화자	420억원의 대체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형평성에 맞게 대기업의 판매시설 사업자에게 대구시민을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지역기여도사업을 준공 전에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4.달구벌대로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은 70m 도로 개설 당시부터 삭막한 도로에 산소 같은 청량감과 활기를 불어넣어 시민들의 사랑은 물론, 수많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매연, 공해 등으로부터 대기환경오염 해소에 많은 기여를 했음. 그런데 중앙분리대 화단 다수가 철거·축소되었으며, 기존 남은 화단에는 지하철 환기구 등의 구조물로 나무 수가 많이 줄었음. 지금이라도 가로변에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고 철거된 중앙분리대의 면적만큼 대체 화단을 새로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람.	어 공사시 70%이상 지역업체 참여, 지역인력 채용확대 및 용역 서비스 지역업체 발주, 별도 자금팀 운영 등에 대해서는 입점 전에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음. (경제통상국장) 감소된 중앙분리대 화단의 대체조성과 관련하여, 달구벌대로 중앙분리대 조성 당시 신남네거리~수성교 구간에 중앙분리대가 23개소 있었으나 지하철2호선 준공시 U턴지점 및 좌회전 차로확보로 7개소가 철거되고 이후 교통구조개선으로 2개소가 추가 철거 총 9개소가 철거되어 현재 14개소가 있음. 철거된 중앙분리대 화단 면적만큼 주변에 대체화단 조성은 반월당네거리~수성교까지 가로녹지 399㎡에 남천 5,637그루 식재를 하였고, 사대부초·부고 담장허물기를 하였으며, 계산오거리~반월당네거리까지 가로녹지 480㎡, 남천 4,950그루를 식재 중에 있음. 향후 중앙분리대 화단철거 시는 중앙분리대 화단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교통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부득히 철거가 이루어질 때에는 철거되는 면적만큼 주변에 대체화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분리대 화단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환경녹지국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재화	1.낙후된 서구지역의 발전을 위한 대안과 관련, 서구지역에는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선호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1일 300톤 규모의 음식물 처리시설도 건설중에 있어 서구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이는 대구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일 610톤)의 절반을 서구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혐오시설이 입지한 지역 이외의 지역은 모두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도시전체 차원에서 부담과 이익이 공평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길 바람. 2.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현재 서구에는 본 시설의 입지에 대해 반대하는	학교 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의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며, 현재 교육청에서는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및 저소득층 기준에 따라 지급할 계획임. 만약,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무료급식을 할 경우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함. 초·중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은 시 재정 여력이 불가할 뿐 아니라 고소득층 자녀 무상 급식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다른 지원예산을 축소시켜야 함. 따라서, 서구지역의 무상급식 지원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시 재정 여건상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 향후 교육격차해소나 학교여건 개선 등 각종 교육지원 사업 추진시 서구지역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계획임.(용역 결과에 의거)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급식으로 인한 소외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8.26 교과부에서는 저소득학생이 직접 제출하던 신청 방식을 학부모가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자녀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 부처간 전산망을 연계 구축키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중임. (시장)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재화	주민들의 목소리라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비선호시설 입지에 따른 갈등요인중의 하나가 혐오시설의 설치·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지역민의 의견수렴과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주민 참여가 미흡하였기 때문임. 본 사업도 계획과정에서부터 지역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입지에 대해 납득할만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생각함. 이제는 어떤 정책도 주민의 관심과 협조없이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인지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람. 3.학교무상급식 시범사업 관련과 관련하여, 서구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비율은 17.6%로 대구시 전체평균 11.6%보다 월등히 높은편이며, 서구는 학생수나, 경제수준, 타지역과의 교육	2013년 음·폐수 해양 투기 금지에 대비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의 입지 선정 용역결과에 따라 설치되었음. 현재공정률 15%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하화 및 최신 공법으로 악취방지, 지상화 휴식 공간 설치중임. 서구지역 발생물량을 우선 처리하여 연간 7억원 정도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비선호시설을 친환경시설 및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환경녹지국장) 학교무상급식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특히, 서구의 어려운 지역상황을 감안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함. 첫째, 서구지역 전면무상급식과 관련하여,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경우 약 1,5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대구의 지방교육재정을 감안하면 이를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우리교육청에서는 전체 무상급식 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재 전체 학생의 11.2%에 해당하는 4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16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14년에는 초등학교생의 50%인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재화	격차 등을 고려할 때 무상급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함. 서구지역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27억정도, 중학교까지 확대해도 50억7천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중학교까지가 어렵다면 초등학교만이라도 우선 실시할 필요성이 있을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람. 낙후된 서구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지난 4년동안 대구시가 서구지역에 교육투자를 한부분은 거의 없기에 향후 몇 배를 투자하겠다는 것보다 앞으로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가 중요함. 교육낙후지역인 서구를 위해 시장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대안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람. 서구지역 전면무상급식 관련하여, 만일 대구시가 서구지역을 무상급식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264억원, 중학생의 40%인 195억원, 고등학생의 30%인 157억원, 총 616억원을 투자하여 전체학생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15만 5천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대구시와 관계 실무자들이 협의 중임. 서구지역 특정 초등학교의 경우 전교생 31.5%가 무상급식을 받고 있을 정도로 가정형편이 열악하여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서구지역을 무상급식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시·구·교육청이 3자 매칭으로 초등학교만이라도 전면 무상급식 지원을 시행하자는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대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을 확대하면서 교육재정을 추가 확보하여 만 3, 4세 아 및 두자녀 종일반 지원, 셋째 자녀 이상 유치원 취원아 지원 등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이 마음의 상처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비 및 급식비, 인터넷통신비,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재화	시·구·교육청이 3자 매칭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서구지역 교육복지 우선투자 관련하여, 서구지역은 어느지역보다 가장 현실적이고 체감적인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으로 이대로 방치하다간 교육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의 균형과 발전을 꾀뜨리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렇기에 서구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투자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방과후 학교 수강권 등 교육지원대상자를 한꺼번에 통합하여 학교교육비통합지원신청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지원대상자 명단 공개 금지, 상담지도 강화 등 우리 대구에서는 학교 무상급식으로 인해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서구지역 교육복지 우선투자와 관련하여, 그동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지역 선정에 있어 지역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4개 이상의 저소득층 밀집학교가 지역으로 묶이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지역단위로 지원하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을 개별 학교단위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사업명칭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바꾸었음. 서구의 경우는 전체학교의 비율보다 높은 초등학교는 17개 학교 중 53%인 9개의 학교가('10년 6개교) 중학교의 경우는 9개 학교 중 89%인 8개 학교('10년 3개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전체학교 대비 초등학교는 23%, 중학교는 28% 정도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교육감)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오철환	1. 경쟁력 있는 대구의 성장 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뮤지컬도시 대구, 오페라도시 대구, 교육도시 대구, 섬유패션 도시 대구, 공연문화도시 대구, 로봇밸리 대구, 컬러풀 대구, 메디시티 대구 등 대구의 구호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중 대구의 아이덴티티는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구가 타 도시에 비해 경쟁력 있는 부문, 그 부문에 대한 집중지원 대책, 그 타이밍과 컨셉은 과연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수성의료지구의 사업 추진 지연의 원인과 대책과 관련하여, 수성의료지구는 메디시티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견인하는 추동력임. 수성의료지구의 개발 일정이 불투명하여 타이밍을 놓치고 있으며,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주민불만이고조하고 있음. 사업추진 지연의 원인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경제 시대 속에서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아이덴티티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경제도시’ 육성임은 공감함. 향후 대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성장동력은 지식기반 산업이며, 대표적인 지식산업이라 할 수 있는 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음. 첨단의료복합 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의료서비스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음. 국가과학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전통산업도 첨단화하여 지역 산업구조를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하겠음. 미래 지역 경쟁력의 원천인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교육도시의 명성을 되찾도록 하겠으며, 최근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뮤지컬 등 문화산업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말까지 지식경제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11년초에 토지보상을 실시하기로 계획하였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미분양 재고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상태가 어려워지고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오철환	올해를 넘기게 되면, 이미 확보된 1,000억원의 국비 예산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점, 총사업비 중 토지보상비 상승분과 조성원가 상승분, 금리 추가 부담액 등 약 1,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총 2,000여억원의 기회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할 것임. 3. 대구도시공사의 재무건실화 방안과 관련하여 대구도시공사는 공공목적으로 토목건설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임. 따라서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고 재고자산이 많을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음. 이에 따라 자본금이 넉넉해야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임. 지금 대구도시공사는 자본금이 작아 재무구조도 부실할 뿐더러 대형프로젝터를 하기엔 힘이 부친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은? 4. 대구의 고교인재를 잡아둘 방안과 대책과 관련하여, 대구는 우리나라의 대표	있고, 지난 7월 정부에서도 전국 공기업의 무분별한 방만 경영에 제동을 걸고자 지방공기업의 신규개발 사업에 대한 공사채 발행 강화방침을 정함에 따라, 도시공사의 현재 재정상황으로는 수성의료지구 토지보상비 자체 조달이 어려운 상황임. 현재 대구시의 재정상황이 어려우나, 조속한 시일내 대구시 소유의 현물을 도시공사에 출자하여 자본금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는 등 재원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추진이 다소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사업비 재원 확보와 아울러 빠른 시일 내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시장) 도시공사의 재무상태('09. 12월말 현재)는 총 자산 1조 814억원, 부채 7,089억원, 자본금은 3,725억원으로 부채비율은 자본대비 190%로 타 시·도 도시공사보다 양호한 실적임.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 재고자산 증가 등으로 단기적 경영애로가 나타남.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성서5차 산업단지, 출판산업단지, 죽곡2지구 택지개발, 주택사업이 있으며, 미분양 주택해소 등 자본금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오철환	적 교육도시임. 최근 우수한 고교 졸업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대부분 빠져나가고 있어 인력 손실이 엄청나게 큼. 대구시의 차원에서 이들을 대구소재 대학으로 유도할 정책적 방안이나 대책은 없는지? 대구가 벌이는 모든 사업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은 사람에서 나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인재 유치와 인재양성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임.	회수되어야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함. 향후 계획중인 사업은 수성의료지구와 국가과학산업단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들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공사에서도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고자산의 조기 회수와 내부 경영개선 등을 통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향상과 투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대구는 교육중심도시였으나 최근 중등교육 및 지역대학의 경쟁력 약화로 고교졸업생들이 수도권 및 유학 등으로 유출됨. 지역대학으로의 유도정책 방안으로는 첫째, 대학경쟁력 강화 및 기업간의 취업연계를 위해 대학별 특성 학과 발굴지원, 둘째, 지역대학 졸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중점육성 지원, 셋째, 글로벌 인재육성 전략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10. 10월)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 추진, 넷째,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정부 의지보다 대학 스스로 노력 필요, 다섯째, 수도권 지역의 실업률이 전국의 60.8% 정도로 막연히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것보다 지역대학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 (기획관리실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규학	북구 노곡동 일원의 침수피해와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함. 지난 7.17일 새벽 4시경부터 오전 9시50분까지 약 6시간에 걸쳐 북구 노곡동 323번지 일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61동의 가옥과 118대의 차량이 침수되었고,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한 달 후인 8.16일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음. 금호강 범람 시 노곡동 일원에 우수를 처리하기 위해 건설 중이던 배수펌프장이 그 원인임. 첫 번째 침수피해 당시 배수펌프장의 양수기를 가동하던 중 이물질들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설치된 제진기의 오작동이 침수사고의 원인이라고 대구시와 북구는 밝혔음. 수해민들을 비롯한 우리 대구시민들의 허탈감과 분노와 불안감을 시장님께 전해드리면서 이번 두 번의 연이은 노곡동	노곡동은 평시에는 큰 피해가 없는 지역이고 금호강 수위가 상승할 경우에 범람을 해서 가끔 수해피해를 받는 지역임. 그래서 북구, 그리고 시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금호강 수위가 상승될 때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산도 부족했고, 또 주민 설득도 못해서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유수지를 만든다든지, 혹은 공사순서를 상류에서 오는 물을 빼내는 공사를 먼저 하고 배수펌프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적절히 판단치 못해서 우선 배수펌프장 공사를 먼저 하게 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함. 우선 1차적으로는 다시 피해가 생겨서는 정말 안 되겠다 해서 두 번째 침수사태 이후는 시가 직접 챙기기 시작했으며, 일일이 챙겨서 현재로는 제진기의 망이라든지 돌아가는 프로펠러를 다 철거하였음. 현재는 약간 방향이 바뀌긴 했지만 공사 이전상태로 회복을 했고, 그래서 함지산에서 비가 온다든지 하는 자연수가 금호강으로 내려가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였음. 그리고 만약 다른 사유라도 막혀서 다시 물이 차오를 때는 바로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규학	침수피해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겠음. 먼저, 침수피해를 야기한 배수펌프장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언론과 관련 전문가들은 배수펌프장의 제진기에 대한 설계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또한, 자연유하하여 직배수할 수 있는 우수관로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음. 그렇다면 배수펌프장 공사를 위한 설계, 시공, 감리 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배수펌프장의 설계와 시공이 적절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둘째, 1차 침수피해 후 2차 피해까지 약 1개월 기간이 있었는데, 1차 침수피해 후 어떤 대책을 마련하여 어떻게 시행하였는지 노곡동 주민들과 시민들께 한치의 거짓도 없이 명백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람. 셋째, 노곡동 주민들께서는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나,	새로 설치한 펌프장은 부유물에 막혀서 가동이 안 될 것을 전제로 대형 펌프시설 13개를 했음. 그래서 새로운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였음.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1차, 2차 종합해서 통보가 됐고, 1차 자동차 피해 부분은 보상이 완료되었음. 현재 주민들께서 이의신청을 북구에서 접수해서 최대한 성의껏 심사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또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을 달랠 수 있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감독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미 특별교부 10억원을 지원했으며, 추가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시장) 설계방식은 금호강 수위상승으로 강물이 역류할 때는 노곡동 배수구역의 66%는 상류 우수지를 거쳐서 배수터널로 배수하고, 나머지 34%는 펌프로 배수하는 방식을 채택했음. 공사시행과정에서 주민반대여론 설득부족과 예산사정상 상류부 우수지 확보 및 고지터널배수시설과 현재 배수펌프시설이 동시에 추진되지 못해서 이번에 노곡동 침수피해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여짐. 앞으로는 철저한 대비와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중장기투자시설도 견고히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규학	펌프장 공사로 인한 인재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의 제1차 피해보상과정에서 또 한번 상처를 받았음. 당장 들어가서 잘 자리도 없는 실정이었으나, 구청에서는 규정과 절차만을 강조하며 보상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주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주지 못하였음. 시장님께서는 1차 침수 피해 발생 후 신속한 주민생활지원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또 지금까지의 피해보상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북구청이 공사와 침수피해보상의 담당행정기관이지만 대구시에 이에 대한 관리 감독관청임. 시장님께서는 재난상황 발생 시 행정지원시스템 혹은 재난상황시에 시정운영매뉴얼과 시민행정에 대한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구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어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않도록 하겠음. 피해보상 진행상황과 보상계획과 관련하여, 피해물건의 종류가 다양하고, 또 손해감정인력이 부족해서 1차 평가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1차 피해 중 차량피해는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고, 또 주택침수 등 2차 피해물건에 대해서 지난 8.30일 개별보상결정을 통보했음. 또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이미 특별교부금 15억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8억원을 추가지급할 예정임. 재난발생 시 행정지원시스템과 시민행동매뉴얼의 구축여부와 그 매뉴얼 내용과 관련하여, 재난발생 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시·구·군 조례에 의거 1차적인 재난관리는 구·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음. 시에서는 구·군의 업무를 종합해서 광역단위 24시간 재난관리 상황을 위해서 평상시에는 전담인력 4명, 지원인력 2명으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구·군 및 각 기관에 상황전파 및 지시, 상부기관의 보고 등 상황관리를 하고 있고, 예비특보, 주의보, 경고발령 등 단계별로 인원을 충원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건설방재국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재술	(서면질문) 국우터널은 대구시 4차 순환도로건설과 칠곡 신도시 개발로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당시 시내 중심가를 잇는 팔달교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94년 민간자본을 유치해 국우동에서 서변동까지 연장 370m의 국우터널을 '99. 7. 7일 준공하여, '99. 8. 1부터 '12. 7. 31까지 유료통행을 실시한 후 '12. 8. 1부터 무료통행을 실시할 예정으로 건설되었음. '09년도 국우터널의 통행료수입이 88억원에 이르는 등 유료통행 실시 이후 '09년말까지 징수한 통행료는 829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매년 국우터널 관리직원 인건비, 부가가치세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있어 민간투자비 537억원에 대하여 '09년말 현재 미상환액은 388억원에 이르고 있음. 현 상태로 매년 원금 30억원씩 상환하더라도 운영기한인 '12년후 13년 정도 경과되어야 상환이	(서면답변) 국우터널의 건설개요는 북구 국우동 산53-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연장 1,680m 규모로, '98년말 기준 사업비 523억원(민자494, 시비29)임. 운영기간은: '99. 8. 1~'12. 7. 31(건설기간 : '95. 8. 16~'98. 7. 7)이며, 사업시행자는 군인공제회임. 그간 추진현황은 '94. 12. 1 민간투자희망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였고, '95. 7. 14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하였으며, '95. 8. 16 ~ '98. 7. 7 공사 시행('98. 7. 7. 무료통행 개시)하였고, '99. 8. 1 통행료 징수 개시(소형 500원, 대형 600원)하였음. 그간 운영현황은 '09년도 통행량이 일 49,079대로 계획(일55,520대)의 89% 수준이나, 통행료수입은 88억원으로 계획(162억원)의 55% 정도임. 주된 원인은 통행료를 적정통행료('99년 700원, '00년 800원)보다 낮게 징수(소형 500원, 대형 600원)한 것임. '09년말 현재 미상환 민간사업비 잔액은 388억원이며,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12. 7. 31에 미상환금액이 292억원 정도임. 미상환 잔액 발생사유는 '99. 8월 개통 후 통행료 인상요인은 있었으나, 칠곡 강북주민 및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통행요금을 적정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재술	완료될 전망이다 무료통행시점이 불투명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칠곡지역에 통과되는 4개 도로중에서 팔달로, 매천로는 무료로 통행하고 있어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가 많은 주지의 사실이고, 또한 칠곡지역 주민들은 국우터널의 통행량이 많아 유료화가 종료되는 시점인 '12. 7. 31 이후에는 무료화가 된다고 굳게 믿고 있음. 이에 대하여 대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요금보다 낮게 징수하여 투자비 상황이 지연되었음(적정 통행료 : 700~800원) 향후 조치계획과 관련 관리운영 기간 종료('12. 7. 31)에 대비하여 미상환 민간사업비 처리방안, 향후 통행요금 징수여부 및 운영주체 검토, 시 재정여건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의회 의 건청취를 거쳐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재술	(서면질문) 섬유패션산업은 제조업 중 가장 높은 취업유발 계수를 가진 산업이며, 최근에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대구시의 효과적인 정책 지원이 더욱 요구되며, 섬유산업에 대한 대구시의 몇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함. 첫째, 작업환경이 취약한 염색 등 섬유업종의 구인난이 심각함. 일손 부족 현상은 지역 섬유 기업들의 투자확대로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구직자들은 작업환경·임금수준·인지도 등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취업을 꺼리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임. 대구시 섬유기업의 인력난 현황과 대구시 정부의 관련 정책성과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둘째, 대구시의 제2단계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이 실시된 최근 5년간 4대 지역전략산업의 지원 성과중 섬유업종이 가장	(서면질문) 대구시 섬유기업의 인력난 현황과 대구시의 정책성과와 관련하여, 대구시는 섬유업계 인력난(특히 염색업종)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기업인턴사업에서 100명을 별도로 할당하여 염색업계에 배정(103명 취업)함. 지속가능하고, 첨단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대졸인력의 섬유업계 취업유도를 위해 섬유패션전공자의 취업지원교육을 진행하여 업계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신규인력 수급 어려움에 따른 재직자의 다기능화를 위한 기술능력 향상 교육 실시(1000명 목표). 향후 염색조합내 취업상담실 상시 운영하여 해당기업에 취업지원하고, 섬유업계의 인력부족이 섬유산업에 대한 이미지에 기인하는바가 크기 때문에 (가칭)섬유산업 인재육성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속적인 섬유산업이미지 홍보에 주력할 계획임. 섬유산업 연구개발 능력 제고에 의한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하이테크 섬유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산업용 섬유분야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내 기계(자동차)산업 등과 연계하여 산업소재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임.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재술	부진한 것으로 분석됨. 섬유산업의 최근 성장세를 지속시킬 방안으로 브랜드가치의 제고와 연구개발 능력의 제고로 신기술과 신제품의 개발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역 섬유기업의 적극적 투자의지가 아쉽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은? 셋째, 대구지역 섬유업체의 가장 취약부분인 ‘해외마케팅 강화’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유학생을 비롯한 지역 거주 외국인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가 들어서기 이전에 상설전시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임.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대구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으로 ‘지역브랜드 이미지제고를 위한 해외활동 강화’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넷째, 지역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섬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인력 확충을 위하여 기존의 재직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확대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내 연구인력 정착프로그램(석박사급)을 개발하여 추진코자 함 그리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WPM(World Premier Materials)사업, 섬유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첨단메디컬섬유소재개발사업 등 전국 경쟁 국가 공모사업 참여 확대할 계획임.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활동 강화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마케팅영역 확대 및 상설전시장 운영을 효율화함. 즉, KTC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해외 Agent 11개로 확대)하고, KTC, DMC 지원대상업체 확대 및 수주상담회, 맞춤형 판로개척사업을 확대함. 중장기적으로는 대구텍스타일 Complex(DTC) 완공후 분산된 마케팅 관련 지원사업을 집적화하여 지역 섬유산업을 “기획-생산-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자기완결형 선순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지원함. 원스톱 종합마케팅 지원시스템 및 상설전시장, 섬유정보센터 구축하고, 섬유역사관을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答辯者)
이재술	유패션산업 스트림간 통합 및 연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염색기술연구소,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소 등 섬유분야 연구소를 통합하여, 지역이 섬유분야 국책연구소를 가지게 된다면 대형 국가프로젝트의 유치 등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의견은? 이와 함께 개별 기업 지원보다 스트림 연계 단위별 또는 연계제품 중심으로 섬유패션기업 지원 강화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은? 마지막으로, 섬유기업들이 자생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는 미흡하면서 지원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며, 대구시 역시 섬유기업과의 발전적인 관계변화가 무엇인지 철저히 연구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림.	통해 “리소스+교육+전시”가 어우러진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구섬유의 브랜드 인지도”향상에 의한 부가가치 극대화를 도모함. 지역 섬유패션산업 연구소의 통합 및 스트림 연계 강화와 관련하여, 섬유분야는 업종별 특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원사, 직물, 의류, 섬유제품 등 상품화분야도 매우 다양함으로 인해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단순한 물리적 통합보다는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신중하고 폭넓은 지혜를 도모하겠음. 아울러, 세계적인 추세인 산업의 융·복합화 현상에 발맞추어 정부가 추진 중인 출연연구소인 “섬유융합기술연구원”이 대구에 설립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재술	(서면질문) ‘09. 11. 25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09년 하반기 경제동향보고회」에서 지역의 자동차부품업체에서 물류비용절감과 관련하여 건의하였던 대구 또는 경산에서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이 있는 울산 효문산업단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산업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함. 대구와 경산에는 지역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부품업체가 다수 입주하고 있으며 '07. 12. 31 기준 대구의 지역 제조업 총매출액중 자동차부품 산업의 총매출액은 28.4%, 종사자수는 지역 제조업 종사자의 22.1%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의 자동차부품업체 대부분은 울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현대조선 등과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어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대구나 경산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7번국도를 이용하여 경산	(서면답변) 대구·경북의 자동차 부품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대구·경산에서 현대자동차생산공장이 있는 울산 효문산업단지로 연결될 수 있는 산업도로 건설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으로 경산진량 ~ 청도 동곡 ~ 울산 IC간 57km이며 왕복2차선인 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음. 본 도로 중 확장이 완료된 경산진량에서 경산자인간 8.3km 구간은 '99년도에 경상북도에서 4차로로 확장을 완료하였고, 경상북도 경계에서 울산 IC간 8.9km는 금년 10월에 울산광역시에서 4차로로 확장을 완료하였음. 현재 본 도로 중 경산자인에서 청도 동곡간 16.8km 구간은 사업비 1,260억원을 투자하여 '04년에 착공, 2015년 완공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진도는 60%임. 현재까지 미착수 구간인 청도 동곡에서 운문령(도경계)간 23km는 5,12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으로 본 도로를 조기에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경상북도에 건의(협조)하여 제3차 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건의 및 금년에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재술	에서 영천을 거쳐 울산으로 갈 경우 거리는 약 95km, 경부고속도로는 약 92km에 이르지만 신설 산업도로 개통시 영천을 거치지 않고 청도, 울산으로 바로 연결되어 거리가 약 30km줄어든 60km밖에 되지 않아 거리상으로만 따져도 물류비용은 약 30%이상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현대자동차는 초저원가 부품 공급가를 요구하고 있어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울산 인근지역으로 이전을 원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자동차에서도 유도하고 있어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여하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임.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대구시에서 관련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사항 등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는 상·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으로 건의하였고, 국토해양부와 관계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주요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음.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본 도로 확장이 조기에 되도록 경북도·울산시와 협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IV. 請願 및 民願處理 現況

1. 請 願 : 해당 없음

2. 民 願

가. 接受現況

○ 分 野 別

區分	計	經濟 產業	教育 文化	保健 福祉	環境 綠地	都市 計劃	交通	建設	上下 水道	其他
今回	11		1		1	4	1	3		1
累計	11		1		1	4	1	3		1

○ 地 域 別

區分	計	中區	東區	西區	南區	北區	壽城區	達西區	達城郡	其他
今回	11	1	2			5	1	2		
累計	11	1	2			5	1	2		

○ 提出者別

區 分	計	個 人					機關 團體
		小計	1人	2~9人	10~99 人	100人 以上	
今 回	11	6	3		1	2	5
累 計	11	6	3		1	2	5

나. 處理現況

區 分	計	處 理			
		處理	不受理	取下	他機關移送
今 回	11	11			
累 計	11	11			

V. 5分 自由發言 現況

가. 分野別 內譯

區分	計	一般 行政	經濟 產業	文化 體育	保健 福祉	環境 綠地	都市 建設	交通	上下 水道	其他
今回	2							1	1	
累計	2							1	1	

나. 發言要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9. 17(금) 10:10	박돈규 의원	○ 화원~서대구 구간 확장공사에 따른 문제점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함. 화원~서대구 I.C 구간 확장공사는 1998년에서 2003년까지 설계에만 5년, 2004년에서 2010년까지 공사기간 6년, 총 11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음. 그나마 지역 정치권에서 공사비 예산을 조기 확보하여 공사를 6개월을 앞당겼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개통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은 기대가 원성으로 바뀌었음.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지고 과거에 비해 더 정체되어 시민들의 교통불만이 더 높아지고 만 것임. 특히, 성서공단 53,000여명의 종사자들은 매일 출퇴근시 더욱 심해진 정체구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9. 17(금) 10:10	박돈규 의원	간을 통행하여야 하는 불편을 느끼고 있고, 연 매출 15조원으로 대구지역 총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500여 성서공단 입주업체들은 물류비용의 증가와 물류배송의 어려움을 더욱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 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제시하고자 함. 첫째, 국토해양부, 도로공사와 대구시가 실시한 설계단계에서 교통량 예측이 오류로 고속국도와 도시고속도로의 차로배분이 잘못되었음. 현재 교통량을 보면, 구마고속국도가 하루 16,000대, 도시고속도로가 하루 99,000대로 6배의 교통량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구마고속국도는 4차로로 운영되고 있고, 도시고속도로는 3차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도로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는 설계였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음. 둘째, 통행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도로설계를 들 수 있음.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구미에서 고령으로 개통되어, 과거 구마고속국도를 이용하던 남북간 교통량의 상당수가 분산되어 교통량이 감소하였다는 것과 확장공사전 구마고속국도상 집중된 교통량의 대부분이 남대구IC와 성서IC에서 서대구톨게이트로, 중앙고속국도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교통량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것임.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9. 17(금) 10:10	박돈규 의원	이에 따라 과거 중앙고속국도와 경부고속국도를 이용하던 차량들이 서대구 I.C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여야 됨에 따라 도시고속도로의 정체가 더욱 가중된 것임. 셋째, 남대구I.C와 서대구I.C구간에 6차선의 도시고속도로 본선으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점임.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구마고속국도는 차량이 없어 과속에 따른 사고위험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도시고속도로는 정체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문제해결의 당사자인 한국도로공사측에서는 “자신들은 고속도로를 담당할 뿐이고 도시고속도로는 대구시의 책임이므로 자기들과는 상관없다”는 해명뿐이고, 대구시는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의 눈치만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진출입로를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고속도로 확장방안을 강구하고 고가도로를 검토하고 있음. 250만 대구시민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속도로와 도시고속도로를 분리하는 방호벽을 뚫어야 한다고 생각함. 성서공단 입주업체와 지역민은 이 문제가 조기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해결 대책으로는 첫째, 대구시가 도시고속도로 양방향 확장 기간동안 서대구I.C~성서I.C 구간의 고속도로를 도시고속도로와 병행사용토록 조치를 하고,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9. 17(금) 10:10	박돈규 의원	둘째, 고속도로 1차선을 고속도로 지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고속도로로 편입시켜야 하며, 셋째, 남대구~서대구IC구간 고가도로 건설방안을 검토하고, 넷째, 남대구IC 또는 성서IC에서 상행 진출입 시설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다섯째, 4차 순환도로 건설시 고속도로를 외곽으로 이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도심통과 고속도로는 시가지 도로로 편입하여야 할 것임. 본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하여 서면 답변하여 주시고, 도로정체 문제 해결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9. 17(금) 10:15	양명모 의원	○낙동강 상수도 취수원 이전 문제를 두고 논란과 갈등이 확산되는 국면을 우려하면서 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 하고, 또한 구미시민들의 대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 드리고자 함. 지난해부터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맑은 물 공급사업'은 낙동강 수계에 산재한 취수장을 통폐합하여 구미하수종말처리장 상류이면서 1급수 지역인 구미시 도개면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대구시 뿐만 아니라 상수도 환경이 열악한 경북지역의 구미, 김천, 상주, 고령, 성주, 칠곡 등 7개 지역에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임.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낙동강의 1,4 다이옥산 수질오염사건 발생 후 대구시의 건의로 시작되었으며, 정부는 작년 11월까지 취수원 이전 구상을 마치고, 12월 국토해양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였고, 올 8월에 완료 예정이었음. 본래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4년말까지 취수원 이전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7억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6,190억원으로 대구·경북 상수도의 역사를 바꾸는 대규모 사업임. 하지만 8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던 예비타당성조사가 최근 중단되면서 안전한 먹는 물 확보의 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9. 17(금) 10:15	양명모 의원	드러난 낙동강 상수원 수질오염 사고만 해도 1991년 페놀사태부터 작년 1,4 다이옥산 사고까지 페놀사고 3회, 퍼클로레이트 1회, 벤젠·톨루엔 1회, 1,4 다이옥산 2회 등 총 7차례나 있었고, 970만평의 구미공단과 60만평의 김천공단에서 매일 1,370가지의 화학물질과 280여종의 미확인 미량유해물질이 우리의 취수원 40Km 지점에서 녹아들고 있다는 점임. 더욱 아쉬운 것은 취수원 이전 사업이 지역간의 갈등이나 수리권 분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의 행정적 절차에만 의존한 채, 상대 지자체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협의를 해가는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반대여론을 조기에 무마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음. 대구시는 지금부터라도 분발하셔서 구미시와 구미시 의회, 상공계, 시민단체 등 구미시민을 향한 설득과 협의에 적극 나서시기를 요청함. 본 의원은 대구·경북의 정치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취수원 이전 문제가 양 지자체 간 갈등이나 반목을 불러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구미시민들의 오해를 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쟁점사안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함. 먼저, 지난 2008년 대구시가 발주한 '낙동강 수계 취수원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온 것은, 본 용역이 낙동강 정비사업이 계획되기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9. 17(금) 10:15	양명모 의원	이전에 시행되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댐건설로 풍부한 수량이 확보된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며, 수질이 나아지는데 취수원을 왜 옮기느냐의 문제는 낙동강 정비사업으로 수질은 나아지겠지만, 수질사고의 핵심인 미량유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어서 생명물질인 먹는 물로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점임. 두번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행위 제한에 따른 재산손실에 대해서는, 계획 취수원은 수질이 1급수로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현재대로 유지하거나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이며, 오히려 하류 해평지역과 구미지역 6.82km²의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여 편익이 느는 부분도 있음. 또한 취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 규제가 늘어날 우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공장입지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법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 중임. 셋째, 1일 95만톤을 취수하면 농업·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이란 우려는, 상류에 건설계획 중인 4개 신규댐과 낙동강 보건설로, 완공년도 2014년에는 하천 유지용수가 대폭 증가될 것임. 오히려 하천유지수량은 현재 325만톤보다 464만톤으로 늘어나게 되고, 하루 95만톤을 취수하더라도 하천유지수량은 369만톤으로 현재보다 44만톤이 증가하여 농업·공업용수 해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9. 17(금) 10:15	양명모 의원	또한 구미보 담수능력이 55.4백만톤으로 갈수기 수질이 더 악화되거나 하천이 오염될 요소는 없음. 본 의원이 큰 쟁점사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구했습니다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구미시민들의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을 것임. 취수원 이전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회를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주축이 되어 구미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미지역에서 공개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함. 상호간 대화를 통한 소통과 이해를 전제로 하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다고 생각함. 이를 통해 구미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그동안 유해물질 사고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아온 대구·경북 시·도민의 건강은 물론, 후세까지 안심할 수 있는 먹는물 해결의 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함으로써 형제지애의 대구·경북이 더욱 화합,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

VI. 本會議 傍聽 現況

區 分		計	1次 (9.1)	2次 (9.2)	3次 (9.3)	4次 (9.10)	5次 (9.17)
계	금 회	119		33	20		66
	누 계	120					
학 생	금 회	58					58
	누 계	58					
시 민 단 체	금 회	1		1			
	누 계	2					
일반인	금 회	60		32	20		8
	누 계	60					

第191回 臨時會

I. 集會 吳 議事日程	101
1. 集 會 / 101	
2. 會期 吳 開議日數 / 101	
3. 議事日程 / 102	
II. 議案接受 吳 處理現況	102
1. 接受現況 / 105	
2. 處理現況 / 106	
3. 主要議案 處理內容 / 109	
4. 繫留議案 / 113	
III. 請願 吳 民願處理 現況	114
1. 請 願 / 114	
2. 民 願 / 114	
IV. 5分 自由發言 現況	115
V. 本會議 傍聽 現況	122

開 會 辭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191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둘 때입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금년에 여러 사업이 세수 부족으로 인해 사업 취소나 계획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지역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국가과학산업단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취수원 및 K-2 이전 사업과 미분양 아파트, 교통카드 문제 해결 등 추진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들을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신뢰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달에는 세계 170여 개국에 흩어져 있는 동포 기업인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국제 비즈니스장인 세계한상대회를 비롯해 대구국제오페라축제와 각종 체육행사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열립니다.

행사들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시민들이 삶의 여유와 행복을 느끼고, 대구를 널리 알리는 데 좋은 기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관계 기관에서는 각종 안전사고와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91회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비롯한 대구 시민의 복리증진과 관련한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중요한 정책수단 중의 하나이자 결산과 마찬가지로 한 해 동안 지방정부가 행한 정책사업에 대한 일련의 평가와 반성의 자리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시민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달에 있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여 주시고, 금년에 추진한 사업 평가 결과가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더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年 10月 11日

大邱廣域市議會 議長 都 二 煥

I. 集會 및 議事日程

1. 集 會

- 집회요구자 : 송세달 의원 외 10인
- 집회공고일 : 2010. 10. 1
- 개 회 일 : 2010. 10. 11
- 폐 회 일 : 2010. 10. 22

2. 會期 및 開議日數

가. 會期 : 12일 (누계 : 41일)

나. 開議日數

- 본회의 : 2일 (누계 : 11일)
- 위원회

區分	計	常 任 委 員 會							特別委員會	
		小計	運營	行政 自治	文化 福祉	經濟 交通	建設 環境	教育	豫算 決算	其他
今回	9	8	1	1	1	1	2	2		1
累計	46	41	3	7	6	8	10	7	3	2

3. 議事日程

가. 本 會 議

次數	日 時	審 議 案 件
1次	10.11(월) 10:12	1. 5분자유발언의 건 2. 제19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次	10.22(금) 10:04	1. 5분 자유발언의 건 2.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8.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9.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나. 委 員 會

○ 運營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1.20(수) 16:00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 行政自治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10.18(월) 10:08	1.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 文化福祉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10.18(월) 10:05	1.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 經濟交通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10.19(화) 10:23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 建設環境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10.13(수) 09:33	1. 노곡동 침수피해조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次	10.18(월) 10:05	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教育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10.15(금) 14:02	1.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 고시안
2次	10.18(월) 10:08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2011世界陸上選手權大會支援特別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10.11(월) 11:01	1. 업무보고 -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및 2011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소관 2.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II. 議案接受 與 處理現況

1. 接受現況

○ 機 關 別

區 分	計	議 會				大 邱 廣城市	教育廳
		小計	議員	議長	委員會		
今 回	19	13	3	3	7	4	2
累 計	65	42	16	18	8	15	8

○ 種 類 別

區 分		計	條 例				預算 決算	同意 承認	建議 決議	其他
			小計	制定	改正	廢止				
計	今回	19	8	1	7			8		3
	累計	65	27	9	16	2	2	11	5	20
議 會	今回	13	3	1	2			7		3
	累計	42	9	5	4			8	5	20
大 邱 廣城市	今回	4	4		4					
	累計	15	13	3	9	1	1	1		
教育廳	今回	2	1		1					
	累計	8	5	1	3	1	1	2		

2. 處理現況

가. 總 括

區 分		接 受	處 理	處 理 內 容					繫留
				可 決		否決 (廢棄)	撤回	其他	
				原案	修正				
계	금회	19	16	15	1				5
	누계	65	60	51	6				
조 레	금회	8	5	4	1				4
	누계	27	23	17	6				
예산·결산	금회								
	누계	2	2	2					
동의·승인	금회	8	8	8					
	누계	11	11	11					
건의·결의	금회								1
	누계	5	4	4					
의견청취	금회								
	누계								
규 칙	금회								
	누계	1	1	1					
기 타	금회	3	3	3					
	누계	19	19	16					

나. 本 會 議

區 分		接 受	處 理	處 理 內 容					繫留
				可 決		否決 (廢棄)	撤回	其他	
계	금회	15	15	14	1				
	누계	59	59	50	6			3	
조 레	금회	5	5	4	1				
	누계	23	23	17	6				
예산·결산	금회								
	누계	2	2	2					
동의·승인	금회	7	7	7					
	누계	10	10	10					
건의·결의	금회								
	누계	4	4	4					
의견청취	금회								
	누계								
규 칙	금회								
	누계	1	1	1					
기 타	금회	3	3	3					
	누계	19	19	16				3	

다. 委 員 會

區 分		回 附						處 理					繫留
		計	條例 規則	豫算 決算	同意 承認	建議 決議	其他	計	附 議		不 附議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9	8		1			6	5	1			5
	누계	37	28	2	3	4		32	26	6			
운영	금회												2
	누계	7	3			4		5	5				
행정 자치	금회	3	3					2	2				1
	누계	8	8					7	6	1			
문화 복지	금회	3	3					2	1	1			1
	누계	6	6					5	4	1			
경제 교통	금회												
	누계	2	2					2		2			
건설 환경	금회	1	1					1	1				
	누계	4	4					4	2	2			
교육	금회	2	1		1			1	1				1
	누계	10	5	2	3			9	9				
특별	금회												
	누계												

3. 主要議案 處理內容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334	대 구 광 역 시 시민민원콜센 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이재술 주문희 이재화 의원	행정 자치	○콜센터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 하여 운영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상담업무를 민 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원안 (10.18)	원안 (10.22)
3336	대구광역시세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시장	행정 자치	○전국 무관할 등록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업무를 시·도간 위·수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신고업무 를 대행한 경우 신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동차 본거지 관할 지 방자치단체장에 전산 송부함.	원안 (10.18)	원안 (10.22)
3337	대 구 광 역 시 여성회관 운 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시장	문화 복지	○회 관 시 설 명 을 용도 및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창업보육센터를 신설함. ○종료된 사업의 사용료를 일부 삭제하고 창업 보육센터 보증금 등을 신설함.	수정 (10.18)	수정 (10.22)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338	대구광역시동부 여성문화회관운 영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문화 복지	○사용신청 취소시 사용료 반환기 준을 마련하고 회관의 정원 외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사용자의 편의 도모 및 기타 시설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 완하고자 함.	원안 (10.18)	원안 (10.22)
3339	대 구 광 역 시 도시계획 조 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건설 환경	○제2종 근린생활 시설도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않 도록 완화하되, 건축물의 연면 적이 3천㎡ 이상 이거나 대지면 적이 7천㎡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인 경우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에 자문을 거치 도록 함.	원안 (10.18)	원안 (10.22)
3340	대 구 광 역 시 고등학교 학 군 설정 일부 개정고시안	교육감	교육	○대구광역시 전 지역을 단위로 하는 ‘단일학군’ 설정 ○경신고, 경일여 고 및 대건고를 학군에서 제외	원안 (10.15)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341	제19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10. 10. 11 ~ 10. 22 (12일간)		원안 (10.11)
334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장		○서명의원 - 도재준, 정해용		원안 (10.11)
334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위원회	행정 자치	○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등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		원안 (10.22)
334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경제교통위원회)	위원회	경제 교통	○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등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		원안 (10.22)
334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건설환경위원회)	위원회	건설 환경	○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등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		원안 (10.22)
3346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위원회	특별 위원회	○활동기간 - '10. 9. 10 ~ '11. 12. 31 (1년 4개월간)		원안 (10.22)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34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위원회	교육	○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등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		원안 (10.22)
334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위원회	문화 복지	○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등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		원안 (10.22)
334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위원회	운영	○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등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		원안 (10.22)
3348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의장		○정해용 의원 (문화복지→경제교통) ○이재화 의원 (경제교통→문화복지)		원안 (10.22)

4. 繫留議案

議案 番號	議 案 名	上 程 日		繫留日	繫留事由
		委員會	本會議		
3294	대구광역시 읍부 즈만 조례안	운 영		2010. 7	
330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운 영		2010. 8	
3332	대구광역시 학원 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교 육		2010. 10	
3333	대구광역시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에 관한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		2010. 10	
3335	문화시민운동협의 회 지원 조례안	문화복지		2010. 10	

Ⅲ. 請願 및 民願處理 現況

1. 請 願 : 해당 없음

2. 民 願

가. 接受現況

○ 分 野 別

區分	計	經濟 產業	教育 文化	保健 福祉	環境 綠地	都市 計劃	交通	建設	上下 水道	其他
今回	8		1			3	1	1	1	1
累計	19		2		1	7	2	4	1	2

○ 地 域 別

區分	計	中區	東區	西區	南區	北區	壽城區	達西區	達城郡	其他
今回	8		1	1	1	1	3		1	
累計	19	1	3	1	1	6	4	2	1	

○ 提出者別

區 分	計	個 人					機關 團體
		小計	1人	2~9人	10~99 人	100人 以上	
今 回	8	5	3		2		3
累 計	19	11	6		3	2	8

나. 處理現況

區 分	計	處 理			
		處理	不受理	取下	他機關移送
今 回	8	8			
累 計	19	19			

IV. 5分 自由發言 現況

가. 分野別 內譯

區分	計	一般 行政	經濟 產業	文化 體育	保健 福祉	環境 綠地	都市 建設	交通	上下 水道	其他
今回	2						1		1	
累計	4						1	1	2	

나. 發言要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0. 11(월) 10:13	김대성 의원	○낙동강 상수도 취수원 이전과 관련한 논란과 갈등이 점증하면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을 우려하며, 대구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재촉구하고, 경북과 구미시도 문제해결에 나서 주기를 요청하고자 함. 낙동강 상수도 취수원 이전 사업은 1991년부터 7차례나 되는 수질오염 사고를 겪은 대구시는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해서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임. 1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전향적인 행정을 촉구한 바 있고, 구미시민에 대해서도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구미시는 우리 의회가 제시한 대화마저 거부하며 대규모 ‘취수원 이전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만 명 서명운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0. 11(월) 10:13	김대성 의원	동에 돌입하는 등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먼저 대구시 집행부는 지금부터라도 진정어린 설득과 대화의 창구를 열고 구미시민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을 전개해 주시기 바람. 대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사업이 아니라, 대구에 부모님이 계시고 구미에 아들이 사는 부모형제 지애의 대구·경북이 수돗물오염 악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물이라는 생명물질의 존엄성의 문제이고, 대구만이 아니라 상수도 환경이 열악한 경북지역의 구미, 김천, 상주, 고령, 성주, 칠곡 등 7개 지역에 동시에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임. 고로, ‘남의 집 마당에 우물을 파는 일’이 아닌 ‘부모형제가 같이 먹을 공동의 큰 우물을 만드는 사업’임을 설득해야 함. 지금도 970만평의 구미공단과 60만평의 김천공단에서 매일 1,370가지의 화학물질과 280여종의 미확인 미량유해물질을 매년 수백, 수천억의 돈을 들여 정수해서 먹고 있는 사실을 이해시켜야 함. 부산, 경남이 위천공단 건설을 반대했다고 해서 대구시가 구미공단의 신증설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애써 외면하고 취수원 이전 반대의 주도 단체로 나서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위임을 강력히 지적해야 할 것임. 먼저, 지난 2008년 대구시가 발주한 ‘낙동강 수계 취수원 이전 타당성 검토’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0. 11(월) 10:13	김대성 의원	용역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온 것은 본 용역이 낙동강 정비사업이 계획되기 이전에 시행되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댐건설로 풍부한 수량이 확보된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며, 수질이 나아지는데 취수원을 왜 옮기느냐의 문제는 낙동강 정비사업으로 수질은 나아지겠지만, 수질사고의 핵심인 미량유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어서, 생명물질인 먹는 물로서는 안전하지 않음을 이해하여야 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개별공장 입지 제한에 따른 주민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계획 취수원 이전지는 기존 선산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지역으로 취수원이 이전되더라도 이전지 상류 공장입지 제한은 변동이 없으며, 오히려 하류지역 해평(지방), 해평(광역)취수장, 구미(공업)취수장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3개소 : 6.82km²)가 가능하게 되므로 공장입지 가능지역이 현재보다 많이 확대되어 구미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 또한, 개별 공장입지 규제 확대 우려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상수도 보호구역 및 취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공장설립 제한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법 관련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많이 감소할 것임. 하천유지수 부족, 수질악화, 생태환경 파괴, 농업·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계획취수원 이전예정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0. 11(월) 10:13	김대성 의원	지의 최근 10년간 실측 하천 유지수량은 325만 톤임. 그러나 상류에 건설 중인 4개의 신규 댐이 (군위댐, 부항댐, 성덕댐, 영주댐) 완료되면 3억1천2백만 톤의 물이 저장되어 1일 약 82만 톤의 유지수 공급이 가능하며,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4개보에서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총 2억1천2백만 톤의 물이 저장되어 1일 57만 톤의 유지수 공급이 가능하고, 상류 17개소의 농업용저수지 제방을 높여서 3천9백만 톤의 농업용수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1일 95만 톤의 물을 취수하더라도 하천 유지수량은 1일 369만 톤으로 현재보다 1일 44만 톤 많아져 수원부족 사태와 수질 악화 초래는 없을 것임. 대화와 소통으로 구미시민들의 피해우려를 해소하고, 여러 차례 먹는물 오염사고에 대한 대구경북시도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도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먹는 물 해결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함. 이번 사안도 서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지혜롭게 해결함으로써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대구·경북이 되기를 바람.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0. 22(금) 10:05	강재형 의원	○지난, 7월과 8월 두 번에 걸친 노곡동 침수사태 후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침수피해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간 2개월에 걸쳐 홍창호 소위원장을 비롯하여 김대성 의원과 본 의원은 침수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였음. 그 결과 조사의견과 함께 네 가지 제도개선사항과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음. 오늘 발언취지는 대안으로 제시한 금호강 하천부지에 우수지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가능성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임. 이미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번 침수의 근본원인은, 무엇보다도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린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 추진사업에 대해 조기에 발주하라는 정부시책에 따르기 위해 계획된 마을상류의 우수지를 설치하지 않고 마을 입구에 제진기를 먼저 설치한 것이고, 세 번째는, 처음부터 설계의 방향설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함. 마을입구에 설치한 제진기는 금호강이 범람시에 배수펌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금호강 범람 빈도는 과거 자료를 보면 30~50년에 한 번 정도임. 그런데, 기존 배수구를 폐쇄하고 평소에도 제진기를 통해 배수되도록 설계한 것임. 인공호흡기는 환자가 위급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가만히 두어도 호흡을 할 수 있는 환자에게 숨통을 막고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0. 22(금) 10:05	강재형 의원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것과 같음. 더구나 침수 방지를 위해서는 시간당 우수의 배출량이 가장 중요하며, 배출 량은 배출속도와 배출구의 단면적에 비례함.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 면 직관으로 된 기존 배출구의 배출속 도는 4m/sec이고, 제진기 설치부분이 곡으로 됨으로써 배출속도가 2m/sec 으로 반으로 감소됨. 따라서, 배출구의 면적이 배로 커야 기존의 물량을 배출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작 았기 때문에 제진기가 정상 작동되어 도 넘칠 수 밖에 없는 것임. 따라서, 직관으로 된 기존배수구를 복 원하고 정비만 하더라도 금호강 물이 범람하지 않는 한 문제가 없을 것이 고, 금호강 범람을 대비하여 대안으로 제시한 금호강변에 우수지를 만들어 거기에 배수펌프를 추가로 설치하면, 마을 주민들의 반대도 없을 것이고 예 산도 절감될 것임. 마을 상류에 설치하기로 계획된 우수 지의 용량은 1,875m³임.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설치된 배수펌프장 바로 아 래의 강둑에 우수지를 조성하더라도 상류에 계획된 우수지 용량만큼 충분 히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하천관리법에서 하천변에 지장물 설치 를 규제하는 것은 홍수시에 우수면적 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다행히 본 의원이 제안한 우수지 위치는 하중도 와 마주하고 있음. 하중도의 면적이 223,000m²이며, 하중도 개발시에 조금만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0. 22(금) 10:05	강재형 의원	조정하면 기존의 유수면적을 확보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임. 이 같은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부산국토관리청의 협조를 받으면 중앙하천관리심의위원회의 승인도 가능할 것으로 봄. 법규가 추구하는 근본목적에 충실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임. 본 의원은 1991년도 낙동강 2차 폐놀사태 때 2시간 소요되는 폐놀검사를 현장에서 법에 없는 간이여과법을 적용하여 10분마다 검사를 함으로써 단수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였음. 끝으로, 이번 사고는 실무공무원 한 두 사람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며, 지난일 보다 앞으로의 대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V. 本會議 傍聽 現況

區 分		計	1次 (10.11)	2次 (10.22)			
계	금 회	40	40				
	누 계	160					
학 생	금 회	40	40				
	누 계	98					
시 민 단 체	금 회						
	누 계	2					
일반인	금 회						
	누 계	60					

第192回 第2次 定例會

I. 集會 ㄛ 議事日程	128
1. 集 會 / 128	
2. 會期 ㄛ 開議日數 / 128	
3. 議事日程 / 129	
II. 議案接受 ㄛ 處理現況	137
1. 接受現況 / 137	
2. 處理現況 / 138	
3. 主要議案 處理內容 / 141	
4. 繫留議案 / 151	
III. 市 政 質 問	152
IV. 請願 ㄛ 民願處理 現況	172
1. 請 願 / 172	
2. 民 願 / 174	
V. 5分 自由發言 現況	175
VI. 本會議 傍聽 現況	190

開 會 辭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한 해를 총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출범한 우리 제6대 시의회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기능을 활성화하고 시민과 소통을 중시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애써 왔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막중한 사명감으로 동남권신국제 공항밀양유치특별위원회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연구 모임 활동과 현장 확인,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6대 의회부터 지방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학부모이면서 납세자인 지역 주민에 의해 교육의원이 선출되었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해 온 교육위원회가 우리 시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교육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도모하여 지식기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데 더욱더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18일에는 2011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교육청과 각 학교에서는 수험생들이 그동안 갖고
뒀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 당일 고사장 환경
조성과 교통편의 제공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만, 겨울철 서민 생활안정
대책은 물론이고 화재 및 산불 예방, 각종 공사장과 주요시
설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금년 겨울에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시민이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겨울철 종합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2일간 열리는 제192회 제2차 정례회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를 앞두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알찬 행정사무
감사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세미나와 시민 의견을 묻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해
왔습니다.

내일부터 10일간 열리는 대구시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대구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견제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바르게
개선되도록 하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구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7조 3,000억 원이 넘습니다.

방대한 규모의 예산을 짧은 기간에 심사하자면 여러모로 어려움이 크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대구시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이므로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시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대구 시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슴에 품고 업무 집행 과정에서 막힌 곳은 뚫어주고 가려운 곳은 긁어주며,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시민을 위한 대안을 과감히 제시하여 이번 정례회가 대구의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소중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한 해의 업무 마무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 내년도 예산편성 등 시정 업무추진을 위해 늦은 밤까지 고생하신 대구시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5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러분 모두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年 11月 10日

大邱廣域市議會 議長 都 二 煥

I. 集會 및 議事日程

1. 集 會

- 집회요구자 : 지방자치법 제44조, 대구광역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 집회공고일 : 2010. 11. 1
- 개 회 일 : 2010. 11. 10
- 폐 회 일 : 2010. 12. 21

2. 會期 및 開議日數

가. 會期 : 42일 (누계 : 83일)

나. 開議日數

○ 본회의 : 5일 (누계 : 16일)

○ 위원회

區分	計	常 任 委 員 會							特別委員會	
		小計	運營	行政 自治	文化 福祉	經濟 交通	建設 環境	教育	豫算 決算	其他
今回	42	35	2	7	6	7	7	6	7	—
累計	88	76	5	14	12	15	17	13	10	2

3. 議事日程

가. 本 會 議

次數	日 時	審 議 案 件
1次	11.10(수) 10:18	1. 제192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시장·교육감)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次	11.22(월) 10:05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次	11.23(화) 10:05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2. 5분 자유발언의 건
4次	12.08(수) 10:03	1.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4次	12.08(수) 10:03	11.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 12. 대구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2010년도 변경계획안 17.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 조례안 18.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23.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次	12.21(화) 10:07	1. 5분 자유발언의 건 2.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委 員 會

○ 運營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11.30(화) 10:00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의회사무처 소관 2.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次	12.10(금) 17:00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의회사무처 소관

○ 行政自治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11.24(수) 14:16	1.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次	11.25(목) 10:08	1.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 4. 대구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10년도 변경계획안
3次	11.26(금) 10:05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4次	11.29(월) 10:03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5次	11.30(화) 14:26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6次	12.10(금) 10:08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7次	12.13(월) 11:15	1.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文化福祉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11.24(수) 10:00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문화체육관광국,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2次	11.25(목) 10:03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3次	11.29(월) 10:00	1.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 조례안 2.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4次	12.10(금) 10:04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 문화체육관광국,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단 소관
5次	12.13(월) 10:10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문화복지 위원회 소관
6次	12.14(화) 09:07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성서시립공동묘지 재개발에 대한 청원의 건

○ 經濟交通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11.24(수) 10:08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소관
2次	11.25(목) 10:10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3次	11.25(목) 10:10	1.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4次	11.29(월) 10:26	1.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고용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5次	12.09(월) 10:07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소관
6次	12.10(금) 10:07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 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7次	12.13(월) 10:10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建設環境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11.24(수) 10:05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도시디자인총괄본부, 환경녹지국 소관
2次	11.25(목) 10:02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도시주택국, 건설방재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3次	11.26(금) 10:03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상수도사업본부,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4次	11.29(월) 10:05	1.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次	12.09(목) 10:03	1. 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도시디자인총괄본부, 환경녹지국, 도시주택국 소관
6次	12.10(금) 10:04	1. 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건설방재국, 상수도사업본부, 건설환경 위원회 소관
7次	12.13(월) 10:06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구교도소 달성군 하빈면 이전반대 청 원의 건

○ 教育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11.25(목) 10:06	1.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次	11.26(금) 11:08	1.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계속)
3次	11.29(월) 10:07	1.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립 초등학교 설립계획안 3.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次	12.09(목) 10:04	1.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를 건 2.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를 건 4.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5.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次	12.10(금) 10:04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 택의 건
6次	12.13(월) 16:34	1.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12.01(수) 10:10	1.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2次	12.02(목) 10:09	1.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문화복지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3次	12.04(토) 13:07	1.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次	12.06(월) 10:05	1.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5次	12.07(화) 10:06	1.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6次	12.15(수) 10:06	1.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7次	12.17(금) 10:05	1.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II. 議案接受 與 處理現況

1. 接受現況

○ 機 關 別

區 分	計	議 會				大 邱 廣城市	教育廳
		小計	議員	議長	委員會		
今 回	35	15	7	2	6	14	6
累 計	100	57	23	20	14	29	14

○ 種 類 別

區 分		計	條 例				預算 決算	同意 承認	建議 決議	其他
			小計	制定	改正	廢止				
計	今回	35	16	3	13		5	10		4
	累計	100	43	12	29	2	7	21	5	24
議 會	今回	15	5	1	4			6		4
	累計	57	14	6	8			14	5	24
大 邱 廣城市	今回	14	10	2	8		3	1		
	累計	29	23	5	17	1	4	2		
教育廳	今回	6	1		1		2	3		
	累計	14	6	1	4	1	3	5		

2. 處理現況

가. 總 括

區 分		接 受	處 理	處 理 內 容					繫留
				可 決		否決 (廢棄)	撤回	其他	
				原案	修正				
계	금회	35	38	26	12				2
	누계	100	98	77	18				
조 레	금회	16	19	13	6				1
	누계	43	42	30	12				
예산·결산	금회	5	5		5				
	누계	7	7	2	5				
동의·승인	금회	10	10	9	1				
	누계	21	21	20	1				
건의·결의	금회								1
	누계	5	4	4					
의견청취	금회								
	누계								
규 칙	금회	1	1	1					
	누계	2	2	2					
기 타	금회	3	3	3					
	누계	22	22	19					

나. 본 회 의

區 分		接 受	處 理	處 理 內 容					繫留
				可 決		否決 (廢棄)	撤回	其他	
계	금회	35	35	23	12				
	누계	94	94	73	18			3	
조 레	금회	19	19	13	6				
	누계	42	42	30	12				
예산·결산	금회	5	5		5				
	누계	7	7	2	5				
동의·승인	금회	7	7	6	1				
	누계	17	17	16	1				
건의·결의	금회								
	누계	4	4	4					
의견청취	금회								
	누계								
규 칙	금회	1	1	1					
	누계	2	2	2					
기 타	금회	3	3	3					
	누계	22	22	19				3	

다. 委 員 會

區 分		回 附						處 理					繫留
		計	條例 規則	豫算 決算	同意 承認	建議 決議	其他	計	附 議		不 附議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26	17	5	4			29	17	12			2
	누계	63	45	7	7	4		61	43	18			
운영	금회	1	1					1	1				2
	누계	8	4			4		6	6				
행정 자치	금회	10	9		1			11	10	1			
	누계	18	17		1			18	16	2			
문화 복지	금회							1		1			
	누계	6	6					6	4	2			
경제 교통	금회	3	3					3	1	2			
	누계	5	5					5	1	4			
건설 환경	금회	3	3					3	1	2			
	누계	7	7					7	3	4			
교육	금회	4	1		3			5	4	1			
	누계	14	6	2	6			14	13	1			
특별	금회	5		5				5		5			
	누계	5		5				5		5			

3. 主要議案 處理內容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332	대 구 광 역 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교육감	교육	○대구광역시 학원 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 조에서 규정한 학교교과교습학 원 및 교습소의 교 습 시 간 을 05:00부터 22:00 까지로 제한하 고자 함.	수정 (11.29)	수정 (12.8)
3333	대 구 광 역 시 학교급식 식 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신현자 김덕란 의원	행정 자치	○학교 급식경비 지원을 위한 근 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식품 비지원심의위원 회」를 폐지하 고, 「대구광역 시교육지원심의 위 원 회」에 서 심의·의결토록 하고자함.	원안 (11.25)	원안 (12.8)
3335	문 화시 민운 동 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재녕 의원 외 7인	문화 복지	○문화시민운동협 의회의 사업과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문 화시 민운 동 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파견 등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수정 (11.29)	수정 (12.8)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351	대 구 광 역 시 의회 회의 규 칙 일부개정 규칙안	김원구 의원	운영	○의원의 의안발 의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되, 발의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함으 로써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함	원안 (11.30)	원안 (12.8)
3352	대 구 광 역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김화자 의원 외 6인	경제 교통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전용면 적이 30㎡이하인 경우 세대 당 0.5대,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 세대 당 0.8대로 완화하려고 함.	수정 (11.29)	수정 (12.8)
3353	대구광역시 의 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 례 일부개정조 례안	윤석준 최병욱 장식환 이재술 의원	행정 자치	○의용소방대원 1 명 1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 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장 학금을 지급받 은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제외함. ○고등학생에 지급 하는 장학금 지 급기준을 일반계 고교 공납금 전 액으로 함.	원안 (11.24)	원안 (12.8)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354	대 구 광 역 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홍창호 장경훈 김대성 의원 외 10인	행정 자치	○기금의 용도에 재난지원조례에 의한 주민피해 지원사업에 소 요되는 자금의 용자항목을 신설	원안 (11.25)	원안 (12.8)
3355	대 구 광 역 시 재난 피해주 민 지원 조례 안	양명모 정순천 강재형 의원 외 8인	건설 환경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 였음에도 불구 하고 주택복구 및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 주민들에게 생 계유지 및 기본 적 생활이 가능 하도록 지원제 도를 마련하고 자 함.	수정 (11.29)	수정 (12.8)
3356	대 구 광 역 시 지 방 건 설 기 술 심 의 위 원 회 조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강재형 홍창호 김대성 의원 외 8인	건설 환경	○설계심의제도를 강화하고, 설계 경제성검토제도 를 도입하여 잘 못된 설계와 공 사로 인해 두 번 다시 노곡동 침수피해와 같 은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제 도적 장치를 마 련하고자 함.	수정 (11.29)	수정 (12.8)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357	대 구 광 역 시 시세 기본 조 례안	시장	행정 자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압류 및 공매 등 채납처분의 방 법과 절차에 관 한 사항을 정함 ○고액·상습채납 자의 명단 공개, 지방세심의위원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원안 (11.25)	원안 (12.8)
3358	대구광역시세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시장	건설 환경	○현행 지방세법 중 취득과 관련 된 등록세가 취 득세로 통합, 자동차세와 주 행세가 자동차 세로 통합, 지 역개발세와 공 동시설세가 지 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되는 등 지 방세법의 전부 개정예에 따라 조 례에 위임된 사 항 및 그 밖의 부과징수에 필 요한 사항 규정	원안 (11.25)	원안 (12.8)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359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시장	행정 자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 등 전국 공통사항이 지 방세특례제한 법으로 이관됨 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함.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기한을 2011. 4. 30까지 연장함.	원안 (11.25)	원안 (12.8)
3360	대 구 광 역 시 제증명 등 수 수료 징수 조 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행정 자치	○전국적으로 통 일된 수수료율 적용함 ○상위법령의 제 정에 따른 불필 요한 수수료를 삭제함.	원안 (11.25)	원안 (12.8)
3361	대 구 광 역 시 성 실 납 세 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강제형 홍창호 김대성 의원 외 8인	행정 자치	○「성실납세자 등 심의위원회」 를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 회」로 통합 운 영함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관 계기관 협조,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삭제함.	원안 (11.25)	원안 (12.8)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362	대 구 광 역 시 지 방 공 무 원 복무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시장	행정 자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내용 을 조례에 반영 하고 공무원 선 서문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원안 (11.24)	원안 (12.8)
3363	대 구 광 역 시 의 용 소 방 대 설치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시장	행정 자치	○소방기관이 설 치되어 있지 아 니한 지역은 화 재진압에 필요 한 시설과 장비 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화재진 압 등의 소방 활동을 하는 전 담의용소방대를 지정 운영함	원안 (11.24)	원안 (12.8)
3364	2011년도 공 유재산 관리 계획 및 2010 년도 변경계 획안	시장	행정 자치	○대구문화관 건물 및 부지 매입 ○로봇산업진흥센터 건립부지 매입 ○U대회 스포츠 센터 건립 ○침복단지 부지 매입 및 커뮤니 케이션센터 건립	수정 (11.25)	수정 (12.8)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365	대 구 광 역 시 고용 노사민 정협의회 설 치 및 운영 조례안	시장	경제 교통	○고용·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을 정하고, 지역파트너십협 의회와 지방고 용심의회의 기 능이 중복됨에 따라 두 위원회 를 통합하여 운 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 련하고자 함.	원안 (11.29)	원안 (12.8)
3366	대 구 광 역 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시장	경제 교통	○스타기업 선정 기준과 유사한 선도 중소기업 선정 제도와 우 수기업인 인증 서 제도의 비효 율적인 부분 등 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 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함.	수정 (11.29)	수정 (12.8)
3367	대 구 광 역 시 건설공사 품 질시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시장	건설 환경	○대구광역시시설 안전관리사업소 를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로 변경함.	원안 (11.29)	원안 (12.8)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368	2011년도 대 구광역시 세 입세출 예산 안	시장	예결위	○예산액 : 5,360,800백만원 ○전년도 예산액 : 5,210,140백만원 ○증감액 : 150,660백만원	수정 (12.3)	수정 (12.8)
3369	2011년도 대 구광역시 기 금운용계획안	시장	예결위	○운용액 : 75,535백만원 ○기정운용액 : 81,156백만원 ○증감액 : △5,621백만원	수정 (12.3)	수정 (12.8)
3370	2010년도 대 구광역시 제2 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 산안	시장	예결위	○예산액 : 5,362,700백만원 ○기정예산액 : 5,388,320백만원 ○증감액 : △25,620백만원	수정 (12.15)	수정 (12.21)
3371	2011년도 대 구광역시 교육 비 특 별 회 계 세입세출 예 산안	교육감	예결위	○예산액 : 2,095,646백만원 ○전년도 예산액 : 1,950,510백만원 ○증감액 : △145,136백만원	수정 (12.7)	수정 (12.8)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372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	교육	○취득 - 남도초 교사 전면개축공사, 일반계고 기숙사 증축 ○처분 - 남도초 노후 교사 철거	원안 (11.25)	
3373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교육감	예결위	○예산액 : 2,180,357백만원 ○기정예산액 : 2,059,120백만원 ○증감액 : 121,237백만원	수정 (12.17)	수정 (12.21)
3374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교육감	교육	○2011. 3. 1.자 개교하는 5개교(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조례에 추가하고자 함.	원안 (12.9)	원안 (12.21)
3375	대구광역시립초등학교 설립 계획안	교육감	교육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개발사업지 내 대구봉무초등학교 설립	원안 (11.29)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376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2차 변경 계획 안 (수정안)	교육감	교육	○취득 : 17건 - 토지:23,635.8㎡ (24,810백만원) - 건물:18,204.8㎡ (37,671백만원)	원안 (12.9)	
3377	제192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 ‘10.11.10 ~ 12.21 (42일간)		원안 (11.10)
3378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원구 의원 외 6인		○출석대상자 - 시장, 교육감		원안 (11.10)
3379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장		○서명의원 - 김의식, 이재화		원안 (11.10)
3380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위원회	운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3건 ○건의사항 : 3건		원안 (12.21)
338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회	행정 자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 42건 ○건의사항 : 59건		원안 (12.21)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38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	문화 복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 43건 ○건의사항 : 42건		원안 (12.21)
338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제교통위원회 소관)	위원회	경제 교통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 46건 ○건의사항 : 72건		원안 (12.21)
338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위원회	건설 환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 131건 ○건의사항 : 46건		원안 (12.21)
338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	위원회	교육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 93건 ○건의사항 : 103건		원안 (12.21)

4. 繫留議案

議案 番號	議 案 名	上 程 日		繫留日	繫留事由
		委員會	本會議		
3294	대구광역시 읍부 즈만 조례안	운 영		2010. 7	
330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운 영		2010. 8	

Ⅲ. 市 政 質 問

1. 質問現況

가. 質問議員數：6名(累計：16名)

나. 質問件數

○ 對象機關別

區 分	計	大邱廣域市	教 育 廳
금 회	7	7	
누 계	25	23	2

○ 分 野 別

區 分	今 回	累 計
계	7	25
일 반 행 정	1	1
문 화 체 육	1	1
교 육		2
경 제 · 산 업		4
환 경 · 녹 지		2
상 · 하 수 도		
보 건 · 복 지	2	3
교 통		4
도 시 계 획	1	1
건 설 주 택	2	6
소 방		
기 타		1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배지숙	대구시는 세계인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콘텐츠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와 최근 부산과 대구지역 언론계에서 앞 다투어 다루고 있고 지역문화계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는 세계적인 미술가 이우환 화백의 미술관 지역유치 검토에 대해 시장님께 직접 확인해 보고자 함. 도시의 경쟁력 중에는 산업적인 강점도 있겠지만 우수한 문화와 문화적 토양도 빼놓을 수 없음. 누구나 찾아가 보고 싶은, 세계가 주목하는 콘텐츠를 마련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개발이 필요할 것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는 스페인의 빌바오, 해변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오페라하우스가 있는 호주의 시드니 등은 세계가 주목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성공한 도시라 할 수 있고, 벨기에에 있는 오쥔싸개 동상, 코펜하겐의 인어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적 토양에 바탕을 둔 세계 일류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특히, 인용해주신 경제는 문화의 충실한 하인이라는 말씀도 가슴에 와 닿음. 우리 대구도 나름대로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 뮤지컬, 오페라를 기축으로 해서 한 4~5년간 열심히 키워왔고, 또 미술관 없는 대구, 그래서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창작발전소가 곧 착공에 들어감. 그리고 뮤지컬전용극장, 시민회관 리모델링, 이런 인프라 측면 뿐만 아니고, 경상감영, 또 대구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골목길, 또 삼성, 박정희 대통령 이런 대구의 역사와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음.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빌바오, 시드니, 나오시마섬 이런 데처럼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일류 콘텐츠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는 사실 자신 있게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임. 그래서 이우환 화백 미술관 유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조금 오랜 기간 동안 이우환 화백 측과 접촉을 했음.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나오시마섬의 이우환 미술관 개관도 주의 깊게 그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배지숙	동상, 독일 라인강변의 로렐라이 언덕 등은 스토리텔링으로 성공한 도시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최근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일본의 나오시마라는 작은 섬은 미술관을 핵심 앵커 문화콘텐츠로 하여 세계적 주목을 받아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음. 본 의원은 이런 것이 바로 문화산업이고, 문화산업의 파워가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함. 저는 최근 지역문화인 다수로부터 시장님께서 이우환 화백의 미술관을 유치하고 싶어 하시는데 예산 사정 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우환 화백에 대한 최근의 언론 보도내용을 검색하였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과 대구의 언론에서 이우환 화백에 대해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특히 부산의 언론에서는 대구가 이우환 화백의 미술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우환 화백과 연고가 깊은	동안 살펴왔음. 이우환 화백은 일본과 프랑스에서 활동하시는 화가이시고, 2007년에는 프랑스 훈장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레종 되뇌르 훈장을 받으셨음. 그리고 내년 6월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아시아인으로서는 고백남준 작가 이후 최초로 이우환 화백 개인 전시회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한국 출신 세계 최고의 미술가로 호평을 받고 있는 분임. 그래서 이런 분의 미술관을 유치한다면 우리가 급변하는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일류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그동안 접촉했음. 세계 최고 수준의 건축가가 설계하고 또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기증 받아서 전시한다면 이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음. 최근 경기도에서 백남준 미술관을 건립하는 등 9개 개인 미술관을 건립했습니다만 대부분 작가가 작고한 이후에 건립하다 보니 까 비용이 많이 듭. 미술관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작품을 수집하고 구매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됨. 그러나 생존하고 계신 세계적인 미술가의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고 또 미술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배지숙	부산이 대구에 이우환 화백 콘텐츠를 뺏기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음. 다행히 대구지역 언론에서도 나오시마섬까지 다녀와서 기획보도를 하고 있음. 이를 보면 이우환 화백의 미술관 유치를 위해서 행정기관보다는 언론에서 먼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도 대구시는 미래 후손을 위한 가치 있는 자산 확보를 위해 결단을 하기보다는 시대적인 고민을 하면서 너무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짐. 그렇다면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 일류 문화콘텐츠 조성방안은 무엇이며, 지역문화계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우환 미술관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이우환 미술관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면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람.	가의 철학과 어떤 소신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그동안 몇 차례 만나고 협의를 해서 현재 합의에 상당히 가깝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또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다른 데서도 눈을 뜨고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음.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구체화되면 시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음. (시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장경훈	1. 제일모직 후적지 사업 지연 관련하여, '05년 제일모직 후적지 개발사업의 1차 연기 후 수 차례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10.7월 다시 '15.7월로 준공예정일이 연기됨.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업 시행에 대한 의지가 없어 사업을 연기할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였으며, 준공예정일 가까워오자 소유권 분할을 핑계로 사업을 10년씩이나 연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5년에 이르러 사업시행자가 다시 준공예정일 연기를 신청하지 않고 사업을 완료할 것이란 보장이 없는데, 그때 다시 준공예정일 연기를 신청하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개발계획의 변경가능성, 공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15년 준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에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져	제일모직 부지를 3개 필지로 분할하여 삼성전자 및 삼성물산에 매각한 것은 회사 내부사정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제일모직측에서는 공장 이전에 따른 신규 투자비 확보와 그룹내에서도 자금력이 풍부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을 끌어들여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한 조치였으나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 오히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라고 보여짐. '08. 1월부터 수차례 공문, 회의, 유선 등을 통하여 사업의 조속 추진 및 세부추진계획서를 제출토록 독려한 결과, 현재 3개사가 사업추진 관련 협의체 구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계속 독려 및 촉구를 하여 빠른 시일내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받도록 노력하겠음. 시가지조성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사업 착수를 지연하더라도 관계법령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뚜렷한 대처 방안이 없음. 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 사업을 반드시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의 지속적인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장경훈	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올해 7월 실시계획 변경 신청시 준공예정일 변경 이외에 타임 스케줄이나 사업계획서는 받아놓으셨는지? 사업 준공일까지 5년 남았는데, 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단계별 대처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금번 이병철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계기로 삼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일모직 후적지를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2. 고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고성2지구는 '08년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내정되어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09.12월 경기침체 상황 등에 따른 사업성 분석 등의 재검토를 이유로 용역이 중지되었으며, 올해 6월 미완성상태에서	협의와 촉구 등을 통하여 우선 3개사 공동협의회 구성을 독려하고, 협의체가 구성되면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는 다각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적극 노력하겠음. 호암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호암동상 건립, “호암로”로 도로명 개칭, 학술포럼, 음악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였음. 조만간 삼성과 공동으로 삼성상회터 기념공간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되면 호암선생 동상과 연계하여 대구가 세계 초일류기업인 삼성의 발원지임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제일모직 후적지에 있는 옛 본관건물과 기숙사는 글로벌기업의 역사가 서린 곳으로서 삼성으로서의 의미가 남다른 곳이라 할 수 있고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만큼 향후 삼성과 다각도로 협력을 증진시켜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방안을 모색하겠음. (시장) 고성2지구는 북구 고성동1가의 경부선 철도와 시민운동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77,737평방미터 정도로서 북구청이 2008년 6월 대구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내정하면서 사업을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장경훈	용역이 종료됨. 시장님께서는 당초 대구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이유가 사업성 때문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의회 특위에서 수익성 보다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우선시 하고 도심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집중하라고 지적하였으면 사업성이 없어도 꾸준히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지? 도심지 슬럼가 영세민의 주거복지사업에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됨. 열악한 주변여건으로 사업성이 낮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야말로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대구도시공사에서 적극 나서 주거복지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성2지구는 영세민의 주거복지 실현과 함께 주택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도시공사가 현 시점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진하게 되었고 2008년 10월 대구도시공사가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경기침체의 여파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사업을 잠정유보하게 되었음. 특히, 4,0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고성2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자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불가피한 실정으로 알고 있음. 재정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본 사업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 시행할 수 있도록 대구도시공사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음. (도시주택국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정순천	우리 시의 여성가족정책 연구기능 확보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함.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평가에서 여성 정책 분야의 성적이 최하위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타 시·도에 비해 여성정책 분야의 경쟁력이 떨어짐을 의미함.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정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무엇이며, 타 시·도와 비교하여 가장 경쟁력을 가지는 정책은 무엇인지? 개정된 여성정책기본법을 고려하면 우리 시는 여성정책담당관 지정을 통한 여성정책책임관의 업무 지원, 공공기관의 여성임원비율 제고 규정, 국가가 관리하는 성평등지수 관리에 대한 규정, 성인지정책 추진 강화 등에 대해 준비해야 함. 그렇다면 시장님, 우리 시는 이러한 변화와 과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성평등국가로 인정받	대구의 여성정책이 타 시·도에 비해 뒤떨어지는 원인, 또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정책기본법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따른 실천 대책, 그리고 독립적인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 설립에 대해서 고견을 주셨음. 먼저, 왜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여성정책 경쟁력이 떨어지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친화도시 대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장 공약사항으로도 채택을 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 첫 번째 노력은 역시 저출산 보육 문제, 두 번째는 여성일자리 문제, 세 번째는 역시 여성정책이 활발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간부층에 여성 공무원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함. 그래서 지난 4년간 2006년 5급의 경우 6.9%가 금년 6월 9.5%로 한 3% 정도 늘어났음. 이것을 앞으로 많이 올려서 여성공무원이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아닌 각 실·국에 골고루 포진할 때 여성정책이 활력을 떨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세 가지 중점을 두고 해왔음. 그 결과 지난 11월17일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중구와 달서구가 선정된 바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정순천	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현재 대구시는 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대구여성가족 정책연구센터를 지역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1년 단위 저예산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형편임. 타 시·도의 경우 현재 16개 시·도 중에서 대구와 광주를 제외하고 14개 지역에 재단법인, 여성회관 소속기관, 지역발전연구원 산하조직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설립되어 있음. 16개 시·도 중에서 여성정책 전문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두 곳뿐임. 광주광역시는 여성정책연구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할 뿐이지 실제로 광주광역시가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광주여성포럼을 2008년에 설립, 운영하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 시를 제	적했다시피 특화된 여성정책 개발이 미흡하고 아마 평가에 대한 대응도 좀 잘못된 것 같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이 없다는 이런 점 등으로 여성정책 분야에서 하위권을 받았지 않나 생각함. 앞으로 이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대구의 여성정책이 좀 더 활기를 띠고 업그레이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림. 여성정책기본법이 이번 국회에 제출되어서 개정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음. 내용을 면밀히 저희들이 미리부터 연구하고, 지금 대구광역시 중·장기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여기에 반영해서 여성정책의 강화, 활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림.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 설립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함. 양성평등센터 설치했다가 또 없어지고, 여성가족정책연구센터, 또 대학에 이리저리 위탁주고 해서는 이것이 옳은 여성정책을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함.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 시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정순천	외한 모든 시·도가 지역 여성정책 연구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지역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 시에만 없는 여성가족정책 연구기능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인의 형태를 갖춘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봄. ‘11년이면 우리 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독립적인 여성정책연구기능을 갖추게 되는 현실과 대구시의 여성가족정책연구센터의 그동안 실적을 확대 적용하고 안정적인 여성정책연구와 개발을 위해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기 위해서 여성친화적인 정책 추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 독립적인 여성가족정책연구원을 설립하는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	강화는 해나가되 연구기관 그냥 덜렁 하나 만드는 것이 답은 아닌이라고 생각함. 연구기관 하나 만들면 또 거기 고정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감. 그래서 지금 여기 여성가족센터 정책연구센터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1년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대폭 늘려서 하되 어떤 형태로 어떻게 여성정책연구기관을 설립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음. (시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대성	낙동강 사업에 따른 대구시의 수변공간 활용계획과 주변지역의 개발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대안을 묻고 향후 낙동강 사업 추진에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첫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에 따라 다양한 휴게시설, 문화시설, 레저시설들이 조성되고 있음. 달성보와 강정보는 지역의 랜드마크적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형미를 강조한 보를 건설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다양한 수변레포츠 공간이 조성되며, 생태체험을 위한 자연형 어도공원, 문화예술 공간 등 다양한 친수공간이 조성되고 있음. 특히, 주요 수변시설까지의 편리한 접근을 위해 진입도로를 개설 및 확충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낙동강 사업으로 조성되는 수변시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	우리시에서는 낙동강 사업의 선도적인 추진을 위하여 '09. 2월 낙동강살리기 및 연안개발기본계획을 수립, 국토부에 건의하였고 우리시가 건의한 달성보, 강정보와 하상준설, 제방보강, 습지복원, 다양한 친수공간조성, 저수지증고, 문화관건립 및 금호강생태하천조성사업을 4대강 사업에 반영하였음. 현풍·구지, 논공, 옥포, 하빈지구 등 친수공간 조성구간에 추가적으로 청보리뜰, 연꽃단지, 잔디광장, 편의시설, 수변공간 확대 등 요구사항은 지역의견 수렴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낙동강유역협의회(지자체, 국토청, 수공, 시공사)등을 통해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적 협의할 것임. 친수공간 진입을 위한 접근도로는 지구별로 기존도로와 연결하여 관리용도로가 계획 되어있으며, 주차장설치는 수질오염방지와 생태환경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제한하였으나, 장래 친수공간 이용자 증가로 주차장 설치가 필요할 시 별도 검토하겠음. 하빈 하목정의 주변식당가와 연계하여 옛 정취를 느낄수 있는 주막촌과 장터, 나룻배터 등의 전통문화체험공간 조성은 현재 용역중인 「제5차 대구권 관광개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대성	여야 함. 우리 대구의 경제회생을 위해 이번 낙동강사업을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낙동강사업에 따른 수변 공간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각 지구마다의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진입도로 확충, 주차장 설치와 같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의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설치되는 강정보 주변의 도류제로 인해 다사읍 죽곡리 강정식당이 일대가 저지대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펌프장 등을 설치할 경우 미관을 현저히 저해시켜 명품보 건설로 쾌적한 수변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최초의 4대강사업 목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염려됨. 해당지역의 23공구 편입에 대한 입장	발계획」에 포함하여 적극 검토하겠음. 강정보 주변 식당마을의 침수피해우려로 낙동강사업에 포함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국토부에 건의를 하였으나, 강정마을 주변지역 침수예방을 위해 도류제 설치, 하상준설, 강정보 설치와 관로설치 등으로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였음. 그러나 낙동강사업으로 도류제 설치 등 주변환경이 크게 달라짐으로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개발방안을 달성군과 협의 추진하겠음.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과학관 유치에 대하여는 국토부 계획에 의하면 부지면적이 10만평이상 소요되므로 원칙적으로 부지매입비가 필요 없는 국유지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용부지 협소로 유치가 어려운 실정임. 에코워터폴리스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과 관련하여,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가 되어야 실현가능한 사업이므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리스크 회피 대책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 함. 최근 Project Financing 시장경색으로 투자자들이 신규 투자에 선평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사업이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대성	과 국토해양부에서 사업 지구 편입을 거부하였다면 대구시에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물과학실험센터의 대구유치를 위해 해당지역을 성토하여 부지로 제공하자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대구시에서도 에코워터폴리스라는 사업명의 리조트개발사업에 대해 추진 중으로 알고 있음. 에코워터폴리스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도입시설 설정이나 대상지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여 외압이나 이권이 개입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전담 TF팀에서 기초조사와 사업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의 시행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친 다음 역량 있는 민간 컨소시엄을 찾아서 이들의 창의적인 아이템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의 시행을 위한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 나갈 계획임. 사업의 추진과정 공개와 공론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잘 선택해서 시행토록 하겠음. (시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신현자	다문화가정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함.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인은 약 118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3%로 급증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도 최근 3년간 다문화가족의 세대수는 113%, 자녀수는 91%로 대폭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도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배타성이 강하고, 멸시와 냉대, 무관심으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포용과 배려로 그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전반의 인식전환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먼저, 결혼이민자 당사자 문제로는 언어소통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 문화적 차이와 민	우리가 단일민족으로 또 순종주의로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서툰 편임. 그런데 벌써 전국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2.3% ,우리 대구도 3만명에 육박하고 있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또 한 측면은 이것이 위기일 뿐만 아니라 기회라고도 생각함.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글로벌도시의 특성을 보자면 대부분이 다민족 다문화도시임. 그래서 오히려 21세기 글로벌시대는 이런 외국인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적절히 잘 대처할 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정부나 우리 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함을 한다는 말씀을 드림. 일례로 지난 4월에 네팔을 방문했을 때 네팔의 외국에 나가서 근로를 하고 송금하는 금액이 네팔 GDP의 1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외무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아주 중요한 과제가 외국인근로자 대책이었음. 그래서 외무성에서 각국의 주재대사들을 불러서 자기들 외국인파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도 하고 건의도 하는데 네팔 정부에서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신현자	족적 차별로 인한 냉대와 멸시로 인한 어려움, 남편의 늦은 결혼과 경제적 취약 등으로 인해 또 다른 미래사회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구시의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2세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05년도 프랑스 파리의 이민 1세대가 주축이 되어서 사회폭동으로까지 확대되어 수많은 차량이 불타고 선량한 시민이 구속되는 등 사회혼란과 국가이미지 실추, 사회적 비용부담증가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다문화가족 2세대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되어야 할 것임. 다문화가정 2세들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대사한테는 “정말 고맙다. 한국에 가 있는 사람이 만족도가 제일 높다. 한국은 어쨌든 1명이라도 더 받아다오.” 하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네팔외무성에서 했다고 함.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외국 인근로자를 포함한 다문화대책에 대해서 열심히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소회를 가진 바 있음. 우선 다문화가정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데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함. 현재로서는 국무총리실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금년 5.7일 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음. 이 내용에는 추진체계, 결혼이민자정착지원 및 자립,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또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제고, 상당히 포괄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계획을 만들도록 용역을 하든지 추진해 보도록 하겠음. 이런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여섯 군데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 그리고 취업·창업지원, 상담, 그리고 일부 남편에 대한 교육도 시작했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신현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중복 지원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문제임. 대구시의 경우 경제통상국, 자치행정국,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전담부서 없이 제각각 추진되어 액션플랜(Action Plan)수립과 시책 추진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대구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다문화가정의 향후 사회적 비용 증가를 미연에 예방하는 중·단기적인 계획수립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체화된 연구와 실행을 위해 외국인 관련업무의 전반을 통합·관리하는 전담부서의 신설이 시급함. 세계는 지구촌으로 이웃과 장벽을 허물고 있으며, 다문화가정도 우리와 함께 가야할 소중한 가족이고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또 우리 시대로 '09.9월에 다다플랜이라는 것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이 계획에 의해서 전국 최초로 결혼이민자 방송통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교육협력사업, 또 민간기업과 제휴해서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을 시작했음. 특히, 다문화가족자녀는 미래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므로, 다문화가족지도에 대해서 시 나름대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학교생활을 지원한다든지 언어지도사가 가서 언어개발이 늦은 자녀들을 도와준다든지, 개별 멘토링하는 사업도 추진중임. 외국인 조직과 관련해서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면서 경제정책과에서는 노조업무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지원을 하고 있고, 국제통상과에서는 외국인센터 등으로 외국인근로자나 유학생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할 수 있는지 조직면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겠음. (시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원구	대구시의 금고운영상의 문제점과 2,500억원이 넘는 19개 기금운용관리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금고와 기금업무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현실적으로 자치단체가 금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금고에 대한 감독 및 관리체계, 평가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첫째, 대구시 금고는 대구시의 자금을 조금이라도 유리한 예금으로 상황에 따라 전환하거나 조언하는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집행부라도 시민의 혈세인 공금의 수익증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의 선정기준과 배점기준에 대한 대구시의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금고 선정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먼저, 우리 시는 '07년 공개경쟁을 통하여 대구은행 등 4개 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하였고, 현재 금리는 계약 당시의 약정금리를 기초로 해서 매월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공표금리와 연동하고 있음. 또한, 매년 월별 수입과 지출의 소요액을 파악해서 세출예산의 월별 자금배정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자금운용을 통하여 1개월 이상의 여유자금은 정기에 금에 예치하고 단기성 자금의 경우에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인 MMDA에 예치하여서 '08년부터 현재까지 약 523억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음. 금고지정 평가항목의 선정기준과 배점기준에 대한 우리 시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금고선정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07년 금고선정시 금고입찰에 참가한 은행에서 한국은행 공표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금리를 제안토록 하였으며, 차기 금고 선정시 금리의 제안요건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고선정시 시의회 동의여부와 관련, 지자체의 금고는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의회 동의절차는 없으나, 금고 선정 시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원구	주시기 바람. 금고 선정 시 금고선정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대구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셋째, 대구은행의 경우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사업자금 75억원은 대구시로 출연하고 있지 않고 금고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업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결과평가를 해서 대구시의 의지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자금도 다음 금고 계약시에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시예산에 편성하여 복지분야 또는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최선의 금고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앞으로 기금운용실태를 분석해서 더욱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드립니다. 첫째, 수입액의 전부를 일반회계 예산의 전입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은 폐지하고 또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개별법상 설치 근거 없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에서 대부분의 수익금을 일반회계에서 의존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그 설치목적의 달성여부와 또 수혜대상자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통합관리기금은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기 위한 기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받는 금액을 앞으로 점차 축소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유사한 기금의 통·폐합과 기금성과분석에 외부전문가 참여방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 자녀 장학금처럼 유사한 성격의 기금에 대하여는 각 기금의 고유목적 달성과 기금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통폐합할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원구	다음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첫째,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조성액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다시 빌려주어서 편성하는 식의 편법 예산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차제에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둘째, 유사한 성격의 장학금지급업무를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해서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배치되게 운용하고 있어, 이러한 유사한 업무의 기금을 통폐합하는 것에 대하여 시장님의 입장은? 셋째,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외부의 민간전문가를 기금운용분석에 참여시키는 등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분석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금운용을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기금운용에 있어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성과분석은 행정안전부의 성과분석지침에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고, 또 행정안전부 기금운영 성과분석 자문단의 확인·점검을 받고 있음. 앞으로 시 자체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분석을 받아보는 것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금운용을 위해서 민간전문가 위원을 위촉하거나 기금총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는 방안과 또 일몰제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금운용을 심의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민간전문가 위원을 1/3 이상 위촉토록 조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금운용이 되도록 하겠음. 기금일몰제와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관리·운용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 및 자금운용의 전문성과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자금운용 전문가의 계약직 채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원구	하거나 기금 전체를 총괄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기금 일몰제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대구시도 기금 등 자금운용의 전문성과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자금운용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IV. 請願 및 民願處理 現況

1. 請 願

가. 接受現況

○ 提出者別

區 分	計	個 人					機關 團體
		小計	1人	2~9人	10~99 人	100人 以上	
今 回	2					2	
累 計	2					2	

○ 分 野 別

區 分	計	保健 衛生	上下 水道	道路 交通	環 境	都市 計劃	其 他
今 回	2					1	1
累 計	2					1	1

○ 委員會別

區 分	計	運 營	行政 自治	文化 福祉	經濟 交通	建設 環境	教育	特別
今 回	2			1		1		
累 計	2			1		1		

4. 處理現況

○ 總 括

區 分	接受	處理	處 理 內 容						未處理
			處 理				不採擇 不受理	撤回	
			議會 處理	市長 處理	他機關 移送	其他			
今 回	2	2					2		
累 計	2	2					2		

○ 委員會 審查結果

區 分	回 附	附 議 與 否		未 處 理
		附 議	不 附 議	
今 回	2		2	
累 計	2		2	

○ 本會議 審查結果

區 分	附 議	採 擇 與 否		處 理 方 法			繫 留
		採擇	不採擇	議會 處理	市長 處理	他機關 移送	
今 回							
累 計							

2. 民 願

가. 接受現況

○ 分 野 別

區分	計	經濟 產業	教育 文化	保健 福祉	環境 綠地	都市 計劃	交通	建設	上下 水道	其他
今回	18	1				3		11		3
累計	37	1	2		1	10	2	15	1	5

○ 地 域 別

區分	計	中區	東區	西區	南區	北區	壽城區	達西區	達城郡	其他
今回	18	1	1		2	2	2	2	8	
累計	37	2	4	1	3	8	6	4	9	

○ 提出者別

區 分	計	個 人					機關 團體
		小計	1人	2~9人	10~99 人	100人 以上	
今 回	18	16	6	2	6	2	2
累 計	37	27	12	2	9	4	10

나. 處理現況

區 分	計	處 理			
		處理	不受理	取下	他機關移送
今 回	18	16		1	1
累 計	37	35		1	1

V. 5分 自由發言 現況

가. 分野別 內譯

區分	計	一般 行政	經濟 產業	文化 體育	保健 福祉	環境 綠地	都市 建設	交通	上下 水道	其他
今回	5	1					2	2		
累計	9	1					3	3	2	

나. 發言要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1. 23(화) 11:30	이재술 의원	○2009년 11월 25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09년 하반기 경제동향 보고회」에서 지역의 자동차 부품업체의 물류비용 절감과 관련하여 건의 하였던 내용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함. 건의내용은 대구·경북의 자동차 부품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대구 또는 경산에서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이 있는 울산 효문산업단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산업도로(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건설을 요청하는 것이었음. 보고회에 참석하였던 시장님께서도 경상북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경상북도에서도 중앙부처에 수차례 도로건설을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실정이며, 자동차부품업체가 많은 대구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1. 23(화) 11:30	이재술 의원	대구와 경북은 양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제통합을 위한 조례 제정 등 공동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대구와 경산에는 지역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부품업체가 다수 입주하고 있으며, '07. 12. 31 기준 대구의 지역 제조업 총매출액 중 자동차부품 산업의 총매출액은 28.4%, 종사자수는 지역 제조업 종사자의 22.1%를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자동차 부품산업은 지역경제의 큰 축으로써, 전국 최하위의 경제성장률과 1인당 GRDP를 기록 중인 대구의 경제를 그나마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임. 지역의 자동차 부품업체 대부분은 울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등과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어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대구나 경산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현재의 경부고속도로나 7번 국도를 통하여 경주를 경유하여 울산으로 갈 경우,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임. 7번 국도를 이용하여 경산에서 영천을 거쳐 울산으로 갈 경우 거리는 약 95km, 경부고속도로는 약 92km에 이르지만, 신설 산업도로 개통시 영천을 거치지 않고 청도, 울산으로 바로 연결되어 거리가 약 30km이상 줄어든 57km밖에 되지 않아 거리상으로만 따져도 물류비용은 약 30%이상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1. 23(화) 11:30	이재술 의원	현대차는 초저원가 부품 공급가를 요구하고 있어 부품업체들은 울산 인근지역으로 이전을 원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차에서도 유도하고 있어 지역 부품업체들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여하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임. 이에 경북, 울산과 함께 협력하여 대구→경산→청도→울산을 거쳐 효문산업단지로 바로 연결되는 산업도로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길 바람. 현재 경산에서 울산 효문산업단지까지 구간 중 미완공 구간인 청도 동곡에서 운문령간 23km는 5,12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으로 2011년 국토해양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건의하였으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대구, 경북, 울산 3개 시·도에서 본 도로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중앙정부,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산업도로건설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여야 할 것임. 국가과학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 첨단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의 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는 것도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중요함. 대구와 경산에서 청도를 거쳐 울산까지 바로 연결되는 산업도로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1. 23(화) 11:35	이재화 의원	○ 직진후 좌회전 신호체계와 신호연동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경찰청은 2010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에 따라 교차로 신호체계를 국제표준에 맞춰 편도 3차선 이상 교차로에 한해 직진 우선으로 개선기로 했으며,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확대와 꼬리물기 근절을 중점과제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먼저, 직진 후 좌회전 신호체계로 인한 교통체증 심화에 관한 의견임. 서울 등 대도시의 고질적인 교차로 꼬리물기 형태를 개선하고, 도심 내 직진 차량을 우선해 교통 혼잡을 줄여보겠다는 교통 문화선진화 방침의 일환이지만, 일부 차량 운전자들은 교통 혼란은 물론, 사고위험마저 높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주말 오후 침두시간에 두류네거리에서 신평리네거리까지 유턴과 좌회전차로가 중복되는 지점과 대구역에서 북성로로 진입하기 위한 유턴과 좌회전차로가 짧아서 직진차로에 혼잡이가중되고 있음. 출·퇴근시간대에 유턴과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20분 정도를 기다려야 하고, 좌회전과 유턴을 하기 위한 차량들이 한 차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직진차로까지 차지하고 있고, 직진차로의 정체로 뒤 신호에서 교차로 꼬리 물기와 사고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음. 좌회전과 유턴차로는 한 차로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차량이 정차하는 경우가 있어 직진차로에 대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임.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1. 23(화) 11:35	이재화 의원	간선도로와 지선도로에 대한 직진후 좌회전 신호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다음으로 도심도로의 연동화 주기에 관한 의견임. 도심 도로의 연동화 주기를 무시한 채 직진후 좌회전으로 신호체계가 변경되어 오히려 교차로의 정체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함. 신호체계가 선진화 방식을 지향하며 연동화 주기를 무시한 채 변경되어 운전자들은 교차로마다 신호대기를 해야 하는 등 평소보다 많은 이동시간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또한, 택시의 경우 평소보다 많은 요금문제로 손님과 실랑이하고, 버스의 경우 정류장에 제때에 정차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과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기존에 5,000원 하던 택시요금이 7,000원으로 상승하여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도심뿐만 아니라 외곽지역인 칠곡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신호등의 연동화체계가 미비하여 승용차를 운행하는 시민과 택시운전자들의 여론이 현재 직진후 좌회전 신호체계 변화와 함께 연동화 미비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시간이 대체로 길어져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대부분의 교차로는 2개차로이던 좌회전 차선이 직진후 좌회전 신호방식으로 변경 후 1개차로 좌회전 차선으로 변경되어 좌회전 차선이 도심 여러 장소에서 지·정체 현상을 겪고 있음.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1. 23(화) 11:35	이재화 의원	본 의원은 신호체계 방식이 직진후 좌회전 신호체계로 변경됨으로써 기존 4현시 체계에서 2현시 체계로 변경되어 신호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일정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대구시 전체적인 직진후 좌회전 신호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시설 유지·보수는 대구시가 맡고 있으며, 관리는 경찰청이 맡는 이원적 시스템으로 되어 있음. 다시 말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대구시가 맡고 있으며, 신호체계 변경 등 관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경찰청이 맡고 있음. 따라서 대구시와 경찰청 간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는 필수적이며, 교차로 신호체계를 직진후 좌회전 신호체계로 바꾸기 전 대구시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함. 교통신호 변경계획은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방안으로 해결하려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되므로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 간선도로의 교차로 연동주기, 비보호 좌회전 등의 신호체계 변경사업을 수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열악한 대구시 재정상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차로 정지선에 좌회전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등 전면적인 신호체계 변경 대책이 강구되기를 촉구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2. 21(화) 10:10	박돈규 의원	○최근 대구시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해 주민 79%가 서명날인한 반대 민원 및 청원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대구시의 안하무인 안일한 행정과 도시계획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대구교도소는 수용자 1인당 부지면적이 약 48㎡를 나타내고 있어 일반적인 1인당 부지면적의 50%에 머무르는 수준이므로 시설의 확장 및 증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낡고 노후할 뿐 아니라 주변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확장 및 증축이 불가능하여 이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지난 2008년 하빈면 주민 71.6%가 지역발전의 대안을 위한 교육지책으로 ‘대구교도소 이전 유치 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으나, 현재 주민의 79%가 반대하고 있음. 하빈 주민들은 제3의 후보지를 물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본 의원도 시정질문(‘09. 6. 17)과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08. 12. 24, ‘09. 12. 18) 등을 통해 2년 동안 교도소를 하빈면 내에서 입지선정의 신중한 재검토를 수차례 촉구하고 주장하여 왔음. 시장님께서는 지난 ‘09. 6. 17 제179회 제1차 정례회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경연의 용역결과에 따라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으나, 본 의원이 ‘09. 11월 받은 대구경북연구원의 용역 중간보고서에는 ‘감문리 입지시 장래 하빈의 발전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2. 21(화) 10:10	박돈규 의원	재검토가 필요함.’이라고 나와 있었음. 유치 건의서를 제출한 71.6%의 주민보다 많은 79%의 주민이 반대하게 되었으며, 특히 유치 건의 서명자 중 대다수가 이전 반대 청원에 동참함으로써 교도소이전 추진이 객관성과 신빙성을 잃어 유치 빌미가 없어졌음. 주민들이 제출한 민원과 청원서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교도소 입지선정에 앞서 하빈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먼저 수립해 달라는 것임. 실행단계에 이른 지금은 주민이 동의할 만한 정책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임. 둘째, 유치 건의서 제출은 사실상의 관치 서명이었음. 주민 71.6%의 동의로 유치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의서를 받기 전 당연히 있어야할 관련정보 공개나 찬반 공청회 한번 없이 이장, 동장이 앞장서서 유치서명만 받은 것은 사실상의 관치 서명이었음. 셋째, 유치신청 홍보 때와는 전혀 다르게 바뀐 행정기관의 태도임. 지난 9월 하빈면 발전위원회 주최로 하빈면사무소에서 개최한 공청회에 350여명의 지역대표들이 참석하여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유치신청을 홍보할 때와는 달라진 행정기관의 모습에 주민들은 폭발하고 만 것임. 넷째, 반대의견을 무시하는 대구시의 먹통행정에 대한 불만임. 하빈의 중심지역이고 역사·문화자원과 중·고등학교가 인접한 감문리에 교도소가 들어서는 순간 하빈의 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잘 알고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2. 21(화) 10:10	박돈규 의원	있는 유치 건의 대표들과 반대청원 대표들 모두 감문리는 입지가 잘못되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 유치 건의 대표들은 하빈에 교도소 이전을 유치한 것이지 감문리에 교도소 이전을 유치한 것은 아니라는 것임. 그럼에도 감문리로 이전하는 것은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 장애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교도소 이전은 곧 하빈의 쇠락을 의미하게 됨. 이에 교도소 이전을 통한 하빈 발전을 위해 다음의 정책대안을 제안함. 첫째,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입지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람. 대구시와 달성군은 주민 71.6%가 유치 건의하였다는 사유로 이후 지금까지 주민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도소 이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임. 대구시에서는 스스로 유치신청 건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공식 철회하고 관련 절차와 실행을 중지해 줄 것을 청원한 주민의 간절함을 헤아려 감문리의 교도소 이전을 철회하고, 대구시와 달성군, 법무부가 추진한 교도소 입지선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함. 둘째,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람.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대구시와 달성군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법무부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임. 대구시와 달성군에서는 사업추진을 법무부에 맡겨만 놓는 편의주의식 행정을 그만두고 입지선정부터 사업의 전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교도소 이전사업을 추진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2. 21(화) 10:15	정순천 의원	○바로 어제 충북 오송에서는 국무총리와 복지부장관 등 각급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이 입주하는 보건의료행정타운의 준공식이 열렸음. 이로써 오송신도시는 보건의료산업의 국가핵심기관이 모두 망라된 보건의료행정타운을 가지게 됨으로써, 사실상 첨단의료복합단지과 결합해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첨복조성에 상당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며칠 전 우리 대구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내야할 수성의료지구 개발을 축소해 3개지구 중 2개를 제외하고, 대홍지구만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했음. 이 때문에 개발지구에서 제외된 고모 및 이천동 주민들은 지구지정으로 인해 생업을 제한을 받아 왔는데, 갑자기 개발지구에서 제외되어 기대했던 토지보상은 물 건너가 버리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로 고통받고 있음. 뿐만 아니라 수성구 이천동에 건립하기로 하고 착공까지 마친 양한방 통합의료치유센터도 계획이 변경되면, 수성의료지구가 아닌 곳에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향후 의료지구의 혜택에서 제외될 지경에 처해 있음.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고자 할 때 가장 앞서서 용역과제를 수선하여 참여했고, 이후에도 대구지역의 임상시험 및 임상연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2. 21(화) 10:15	정순천 의원	구를 글로벌 산업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WIRB와의 양해각서 체결과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큰 강점인 한의학과의 접목을 이루어낸 통합의료센터의 설립을 주도하는 등 가장 발빠르게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온 몇몇 기관이 이사진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이로 인해 출범도 하기 전부터 뼈저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림. 선임직 이사는 공동설립자로서 출연기관, 의료연구개발기관 중 출연규모, 경영에 대한 참여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선정한다고 하였는데, 선임된 이사들이 그동안 이들 기관보다 더 활발하게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해왔는지 의문임. 지금 침복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외부지명도에 따른 구색 맞추기식 기관의 유치나 이사의 선임이 아니라 침복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성공을 향한 열정임. 그런 점에서 참여에서 배제된 이들 기관이 야말로 그동안 가장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침복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임. 지금 오송은 국내외의 수많은 기관으로부터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관련 6대 국책기관의 입주로 침복단지 성공에 사실상 날개를 달았음. 침복유치전에서는 오송이 비록 2위를 하였지만, 짜임새나 실속은 우리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의 구성을 능가함. 지금까지 실현된 것만 보면, 우리 대구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2. 21(화) 10:15	정순천 의원	가 오히려 오송의 들러리가 된 듯한 기분마저도 들 정도임. 이런 와중에 더 키워도 시원찮을 우리지역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막강 의료네트워크라는 우리의 강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갈수록 왜소해지고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은 끊이질 않고 있음. 이대로 가다가는 무늬만 첨복이 될거라는 우려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음. 대구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첨복의 성공을 향한 대구시의 의지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음을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함. 하루빨리 전 대구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구 축소와 관련한 해명이 있어야 하며, 첨복과 메디시티 대구의 성공을 위해 대구시가 얼마나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임. 대구시민들 중 어느 누구도 첨복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지금처럼 현실의 어려움을 핑계로 사업을 축소하는 소극적인 모습보다는 대구시가 좀더 열정적으로 좀더 적극적이고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대처해 현실을 타개해나가기를 바라고 있음. 또한, 첨복재단의 이사구성도 그동안 열정을 갖고 첨복단지의 유치와 성공방안을 준비해온 기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2. 21(화) 10:20	박성태 의원	○최근 시교육청에서 올 연말에 공포하겠다는 일정으로 추진중인 농어촌가산점 하향조정을 위한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개정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현재 달성지역 39개 학교(초등 25개, 중등 14개 = 공립 11개 + 사립 3개), 1087명의 교사(초등 708명, 중등 379명) 들은 원거리예다 대중교통이 매우 불편한 교통여건, 사교육기관과 극장 등 취약한 문화인프라, 뒤떨어지는 생활수준과 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도, 그리고 소규모 학교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따른 일인 다역의 업무부담, 게다가 소규모학교의 적은 교사수로 인한 근무평정상의 상당한 불이익 등 열악한 조건을 감내하고 있음. 개정안은 주로 타지역 교사들의 문제제기와 여타 가산점과의 격차를 문제삼아 만점을 1.7에서 1.34로 낮추고, 만점 0.84점인 교육특구(초등 서부 44개, 동부 23개, 남부 18개 등 85개교, 중등 서부 7개, 남부 6개, 동부4개, 동부공고 등 18개교 총103개교) 가산점과 합산하여 1.7점으로 제한하고 있음. 먼저 최근 다사지역의 인구급증 및 다수 교사들의 실거주이전, 학교와 교사수 증가 등에 의한 효과를 상쇄하더라도 최근 2년간 달성지역에 교사들의 전입러시가 있었던 점, 올 4월 근무평정 반영기간을 10년에서 5년 중 본인에게 유리한 3년으로 축소함으로써 소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2. 21(화) 10:20	박성태 의원	규모학교가 다수인 달성지역교사들의 불리한 사정이 다소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일부 가산점을 하향조정하는데 대해서는 수긍할 수도 있음. 하지만 그 폭은 농어촌가산점의 애초 도입 배경과 실제 근무여건상의 애로와 고충을 충분히 살피서 신중하게 검토되고 최소한에 머물러야 할 것임. 특히 특구가산점과 합산하여 1.7로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통과 교육 등 전반적 여건이 나은 광범위한 특구 학교를 선호하기예, 사실상 농어촌가산점을 특구가산점과 비슷한 수준인 0.86점으로 절반이나 낮추는 과격한 조치이므로 철회되어야 함. 또한 연평정점에서 농어촌의 가장 낮은 ‘가’급지 점수를 특구의 ‘라’급지 가장 높은 점수와 일치시켜 도심에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화원, 다사, 서재지역의 가산점을 특구수준으로 맞추려는 것은 심각한 파장을 몰고올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음. 아울러 최근 2년간 비슷한 시기에 전입러시가 특구지역에도 나타났던 점을 고려할 때 조정한다면 특구가산점도 같은 비율로 조정하는 것이 마땅함. 두 번째 문제는 소숫점 몇째 자리 한 두점에 희비가 갈릴 정도로 민감한 승진규정을 바꾸면서 단 이틀만에 의견수렴을 끝낼 정도로 급하게 추진되는 점임. 의사결정과정을 늦추어야하며, 시행하더라도 적어도 2년 내지 3년의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2. 21(화) 10:20	박성태 의원	다음은 소급적용의 문제임. 현행 규정에 따라 이미 취득한 가산점은 인정되어야 함. 네 번째는 농어촌가산점을 손대려는 이유가 달성지역에 많이 가려고하는 점도 있지만 한번 가서는 만점을 받으려고 해당 지역내 몇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오래도록 타지역청으로 나오질 않는다는 점임. 그렇다면 연평정점을 오히려 높여서 만점에 도달 하는 기간을 줄여야할 것인데 교육청 방침에는 연 평정점을 같은 비율로 낮추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음. 유능한 선생님들을 오래도록 붙들어놓고 싶은 달성지역 입장을 넘어선 지적이니만큼 심도있고 유연성있는 검토를 요청함. 가산점을 줘도 성적은 개선되지 않더라는 교육감님의 말씀은 실제 자료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권익위원회 컨설팅 지적은 청렴도에 치중한 제안일 뿐임. 충정어린 지적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깊은 통찰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직접 해당지역 일선 교사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선행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

VI. 本會議 傍聽 現況

區 分		計	1次 (11.10)	2次 (11.22)	3次 (11.23)	4次 (12.8)	5次 (12.21)
계	금 회	103	40	14	7	41	1
	누 계	263					
학 생	금 회						
	누 계	98					
시 민 단 체	금 회						
	누 계	2					
일반인	금 회	103	40	14	7	41	1
	누 계	163					

議政報告書〈第54號〉

(第189回~第192回)

발행일 : 2011년 3월 일

발행처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전화 : (053)803-5053

FAX : (053)803-5046

〈비매품〉

